

열상고전연구회 2007년 봄

제35차 정례 학술발표회

일시: 2007년 3월 31일 (토)

장소: 연세대학교(신촌) 위당관 501호

洲上古典硏究會

열상고전연구회 2007년 봄

제35차 정례 학술발표회

일시: 2007년 3월 31일 (토)

장소: 연세대학교(신촌) 위당관 501호

열상고전연구회

발표회 일정

13:30-13:50 회원 등록

13:50-14:00 개회사(회장:허경진)

14:00-14:50 제1발표 및 지정 토론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정체”

발표: 전성운(순천향대) / 토론: 권순공(세명대)

14:50-15:00 휴 식

15:00-15:50 제2발표 및 지정 토론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발표: 이성민(성균관대) / 토론: 김은정(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50-16:00 휴 식

16:00-16:50 제3발표 및 지정 토론

“임진왜란과 義妓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발표: 박노자(오슬로대) / 토론: 정명기(원광대)

차례

제1발표

전성운(순천향대), <수성지(愁城誌)>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1

제1발표 토론

별지 16

제2발표

이성민(성균관대),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17

제2발표 토론

김은정(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34

제3발표

박노자(오슬로대), 임진왜란과 義妓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36

제3발표 토론

정명기(원광대 국어교육과) 45

(제1발표)

<수성지(愁城誌)>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전성운(순천향대)

<목 차>

1. 머리말
2. 시름에 대한 탐색
 - 1) 발생적 측면
 - 2) 내용과 형상의 측면
3. 시름에 대한 대응과 그 의미
4. 맺는말

1. 머리말

<수성지> 관련 연구는 적지 않게 축적 되었다. 특히 작품의 구성이나 표현기법을 주제의식과 관련지어 연구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비판, 풍자, 저주, 저항, 우의(=알레고리), 역설(逆說), 탄식, 회화화와 같은 어휘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들 어휘의 대상은 (정치) 현실, 작가 자신의 불우, 천도와 성리학적 심성론으로 치환(置換)되는 봉건 이념, 형이상학적 세계 등이다.¹⁾ 이것은 <수성지>가 당대 현실이나 이념적 규범에 대해 회의하거나 비판 혹은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되, 직접적으로 드러냈는가 아니면 우의(알레고리)나 역설 혹은 회화화의 형식으로 간접화하여 드러냈는가를 다양한 시각으로 포착한 결과이다.²⁾ 한마디로 그동안의 <수성지> 연구는 다음의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요컨대 임제가 마주한 현실 혹은 그의 이념적 이상이 역사(현실)에서 어그러지거나 모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성지>를 창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수성지> 연구의 모순성이다. 그간 <수성지>를 당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평생 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우언”이라는³⁾ 모호한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수성지>에는 16세기 정

1) 이와 관련된 기왕의 모든 연구에 대한 평가와 정리는 참고문헌으로 돌린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음에 양해를 구한다.

2) 물론 <수성지>에 대한 가치 평가에 소극적인 일군의 연구, 이상의 관점과는 대척적인 시각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이들은 <수성지>가 작가 의식이 결핍되고 구성이 산만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회필적 문체의 과시가 작품 이해의 핵심적 코드라고 주장한다.

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저항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연구자들은 <수성지>를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의 중층적 알레고리⁴⁾ 혹은 역설적 진리를 환상과 의인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우언이라고⁵⁾ 규정한다. 우의하는 실체를 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냉혹하지만 적절한 평가를 한 경우도 있다. 즉 <수성지>는 우언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우의의 기본 원칙인 현실과의 일의적 대응성을 파괴”되어 있으며, “문맥의 우의 관계는 종잡을 수 없이 형클어져”⁶⁾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런 일련의 지적은 <수성지>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실체 파악이 곤란함을 반영한 것이다. <수성지>와 당대 현실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성지> 연구는 일정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수성지>와 당대 현실, 작가와 작가가 마주한 현실 모순의 관계만 따지는 역사 사회주의적 연구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 있다.

본고가 <수성지>를 다른 방향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수성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름의 성에 대한 기록” [= 愁城誌]이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시름’의 탐색과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하도록 하겠다.⁷⁾ 요컨대 <수성지>가 당대 현실에 던지는 물음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밝히기보다, <수성지>를 통해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일차적 관심에 초점을 맞춰 본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시름에 대한 탐색

<수성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양상으로 시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를 시름에 대한 탐색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시름에 대한 탐색은 발생적 측면과 형상과 내용의 측면에서 살피겠다.

1) 발생적 측면

여기서는 시름은 왜 발생하는가란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는 작품에서 실행하고 있는 바, 시름에 대한 탐색의 양상과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될 터이다. 그러므로 본 항의 전개 역시 작품 내용의 전개에 따르도록 하겠다. 다음을 보자.

근본이 아직 굳건하지 못한테 곧장 한묵(翰墨)의 마당과 문사(文史)의 지역에서 노닐어 밤낮으로 오로지 친근히 하는 무리는 도홍(陶泓), 모영(毛穎) 등 넷에 불과할 뿐이요 또 강개(慷慨)히 고금의 영웅들을 상상하여 이네들을 폐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왕하도록 버려두고

3) 윤주필, 수성지의 3단구성과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3, 한국한문학회, 1990.

4) 권순궁,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13, 고전문학회, 1998, 312-326쪽.

5) 정확성, 우언 양식의 서사 구조와 비판정신, 동양학 제38집, 단대 동양학연구소, 2005. 8. 33쪽.

6) 윤채근, 소설적 주제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379쪽.

7) 이와 관련하여 <관성여사서(管城旅史序)>의 내용은 주목할만하다. 여기서 임제는 ‘史’란 문체명을 사용한 까닭을 문답의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임제가 <수성지>를 창작했을 때 제목에 ‘誌’란 문체명을 사용한 의도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관성여사서(管城旅史序)>, 신호열·임형택 역, 역주 백호전집, 창작과 비평사, 1997, 795쪽.)

있으니 이들 무리가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⁸⁾

천군이 즉위한 후 강충(降衷) 3년에 주인옹(主人翁)이 올린 상소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이는 시름의 시작은 어떠한가를 짐작케 해준다. 그 시작은 글을 짓거나 쓰는 것, 문학 작품과 역사서에 대한 탐독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개한 마음으로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글을 짓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첩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 자체가 시름의 본령은 아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짐으로써 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이다. 문학적 감상주의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강개한 심사가 시름으로 이어짐을 뚜렷하게 밝힌 셈이다.

이와 같은 주인옹의 상소는 천군의 마음을 움직인다. 천군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천군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회고는 이미 그만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천군은 “죽백(竹帛)을 가까이 하여 놓고 고금을 노래하는 데 뜻을 붙”인 중독 상태에 빠졌다. 역사서를 읽고 문학 작품을 탐독하거나 문예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때의 천군은 강개(慷慨)한 분(憤)에 휩싸이며, 이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지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행된 주인옹의 상소는 더욱 극렬해진다.

현실을 논란하고 과거를 애달파하는 것은 존심(存心)하는데 보탬이 없거니와 먹을 갈아서 붓을 휘두르는 것이 양성(養性)을 하는데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대개 인의예지(仁義禮智) 중에서 오직 수오(羞惡)가 일을 벌이고 시비(是非)가 논의를 주장하는 한편, 밖으로 감찰관(監察官)과 서로 통하여 주제넘게 비분강개(悲憤慷慨)해서 저만 잘난 체하고 저만 고상한 체하는 태도는 심히 나라를 안정케 하는 방도가 아닙니다.⁹⁾

주인옹이 천군에게 올린 상소는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하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치밀함은 더욱 분명하다. 주인옹은 “수오(羞惡)가 일을 벌이고 시비(是非)가 논의를 주장하며, 감찰관(監察官)과 서로 통하여 비분강개해”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수오는 의(義)고 시비는 지(智)다. 역사와 현실의 문제와 모순에 대해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가리킨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사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중요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비분강개해 하기 마련이다. 모순에 찬 현실을 묵도하면 비분강개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역사의 모순을 눈감아 넘기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며, 마음을 기울여 역사와 현실의 모순을 규탄하게 된다. 마음에 분한 기운이 가득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시름이 생겨난 전부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마음의 혼란은 아직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군은, “멀지 않아 천리를 회복할 것”이라 선언하고 “각자 주어진 중책을 저버림 없이 하라.”고 말한다. 천군이 연호를 바꾸어 복초(復初) 원년(元年)으로 정한 것도 어지러워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낙관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시름의 발생은 역사적 모순이나 현실적 문제에서만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로서 시름에 대한 단순하고 소박한 이해는

8) 역문과 원문은 모두 위의 책을 참조하였다. 아래의 모든 인용도 같다. 위의 책, 676-677쪽. 且根本未固, 而遽遊於翰墨之場, 文史之域, 日夜所親近者, 陶泓毛穎輩, 四人而已. 又慨想今古英雄, 使其憧憧來往於肺腑之間, 如此等輩, 作亂不難也. (<수성지>, 백호전집.)

9) 위의 책, 677쪽. 夫論今弔古, 無補於存心, 磨鉛揮翰, 何益於養性? 盖四端之中, 羞惡用事, 是非持論, 外與監察官, 交通, 越分慷慨, 矯矯亢亢, 甚非所以安靜之道也.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애공이 감찰관, 채청관과 합소; 필자주)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옥우는 텅 비고 가을바람 쓸쓸하여 우물가의 오동잎에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뽁뽁한 대숲에 이슬은 떨어지니 꾀꼬리 읊조려 풀이 시들고 기러기 울어대어 구름이 차가운데 있는 떨어져 우수수 소리를 내고 부채는 버려진 채 돌보지 않아 반약이 귀밑머리 희어지고 송옥의 수심이 뒤숭숭합니다.¹⁰⁾

최근 연구자들은 대부분, <수성지>의 시름이 역사 모순과 현실의 문제라는 중세 봉건이념의 모순 혹은 역사철학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원리 혹은 선형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풍자와 역설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전개란 측면에서 본다면 시름의 본격적 발현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 환경의 변화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가을을 맞이하여 뜻 물상은 시듦과 조락을 겪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늙음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젊음의 상실, 반약과 같은 아름다움의 상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본원적 슬픔에 잠기게 한다. 안팎으로 시름의 조건은 성숙되어 간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내적 어지러움을 다스려 천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복초]가 무위로 끝나 버린다. 가을의 쇠락은 인간의 쇠락을 연상시키며 시름을 돋운 셈이다. 이것으로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 발생의 원인이 역사와 현실, 이념 등에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연 시름이 외물에 기인하여 시름하는 것인지 혹은 외물이 시름에 기인하여 근심스럽게 보이는 것인지 이도 저도 알 수 없사오니 시름하면서도 시름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데 또 어찌 시름 않는 그 소이연을 아오리까? 또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시름하는지 들리는 것에 의해서 시름하는지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¹¹⁾

애공(哀公) 등의 합사에 의하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소종래(所從來)는 도통 알 수 없다. 보는 것에서 시름이 생기는 것인지 듣는 것에 시름이 생기는 것인지 모를 노릇이다. 사실 시름의 근원은 따지면 따질수록 더더욱 알 수 없어진다. 내재하던 시름이 가을의 경물로 촉발되게 된 것인지 스산한 가을 경물이 시름을 생겨나게 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름하지 않을 방법도 없다. 시름은 왜 생기는지 알 수 있어야 시름겨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름이 생기는 까닭을 모르니 한번 시름에 빠지면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통 모를 것이 시름이다. 더욱이 이 시름이란 것은, 한번 생기면 감히 숨길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무극옹이 “하직의 말도 아니하고 떠나”갔던 것도 그런 사실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극옹이 떠나자마자 굴원과 송옥이 천군을 찾아오는 것이나 천군이 이들과 동질감을 확인하고 수성 쌓는 것을 허락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결국 <수성지>에서 말하는 시름이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름하지 않을 까닭조차 알 수 없는 불가지(不可知)의 그 무엇이다. 모든 것이 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지만 모든 것이 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한 시름은 그것이 한 번 발현하기 시작하면 천군은 말할 것도 없고, 무극옹[=우주의 시원적 원리의 형상; 필자주]조차도

10) 위의 책, 679-680쪽. 伏以玉宇寥廓, 金風淒冷, 涼生井梧, 露滴叢篁, 蛩吟而草衰, 鴈叫而雲寒, 葉落而有聲, 扇棄而無恩, 華潘岳之鬢, 撩宋玉之愁.

11) 위의 책, 681쪽. 是不知愁因物愁, 物因愁愁? 愁而不知所以愁, 又焉知所以不愁也? 且不知見而愁耶, 聽而愁耶? 實不知其故. 臣等俱忝職司, 不敢隱諱, 謹以煩瀆.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본원적인 그 무엇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이 불가적인 속성과 불가항력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드러낸 것이다.

2) 내용과 형상의 측면

그렇다면 불가의 본원적인 존재로의 시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시름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시름의 구체적 면모 또한 쉽게 규정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시름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름은 다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 구체적 면모는 일단 '시름의 성'에 존재하는 네 문으로 입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충의문과 관련된 형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조비(曹丕)가 황제를 자칭하니 의사(義士)의 분(憤)과 영웅(英雄)의 한(恨)은 응당 어떠하겠는가? ... 한번 아몽(阿蒙)의 술수에 빠져 강동을 병탄하지 못한 한(恨)을 남긴 이 바로 관운장(關雲長)이다. ... 어찌 정성은 돌을 꿰뚫으면서도 사람은 감동시키지 못했던가? 아아, 원통하다! ... 등에 육척(六尺)의 고아를 업고 나라와 더불어 운명을 함께 했으니 육수부(陸秀夫)가 애달프도다.¹²⁾

충의문과 관련된 인물들이 분출하는 시름의 구체적 양상은 분(憤), 한(恨), 원통(冤痛), 애(哀)의 감정이다. 제갈무후와 관운장의 모습에서 읽어낼 수 있는 천도의 어긋남과 영웅적 기상의 좌절이 빚어내는 분(憤)과 한(恨), 장순 등의 원통함, 그리고 악비, 문천상, 육수부와 같이 의리를 실천하다 속절없이 죽어버린 것에서 발생하는 애(哀)는 천군이 충의문에서 목도한 시름의 구체적 면모다. 관성자의 지적처럼, “아득한 고금에 일신을 돌보지 않고 순국하였거나 의(義)에서 나아가 인(仁)을 이룬 이들”이 시름의 구체적 면모인 셈이다. 결국 충의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인물들에서 드러나는 시름의 구체적 양상은, 역사 현장에서 천도나 보편의 선형 원리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만이 충의와 관련된 시름의 전모는 아니다. 관성자가 “어찌나 많은지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 것이나, “중국 제도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기록한 것은, 천도가 실현되지 않는 어그러지고 모순된 역사 현상이 단순히 과거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편만하고도 보편적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충의문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이루 셀 수 없는 것처럼 시름의 구체적 면모도 그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음을 뜻한다.

결국 시름은 중세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眞理)로 받아들여지는 의리를 실천하던 충의지사(忠義志士)가 좌절하는 모순된 역사 현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일한 역사적 사건 혹은 몇몇의 특정화된 역사 사건에만 존재하는 한정된 수의 것이 아니다. 과거 역사적 시공간 속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것들이다.

한 목숨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바치기로 하고 한 자 남짓한 비수(匕首)를 어루만지며 장사(壯士)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른 아닌 형경(荊卿)이다. 서초패왕(西楚霸王)은 한 필

12) 위의 책, 686-688쪽. 曹丕稱帝, 義士之憤, 英雄之恨, 當復如何? 鴻門宴罷, 玉斗如雪, 忠憤激烈, 至死不二者, 范亞父也. 騎赤兔馬, 提青龍刀, 綠袍長髯, 矯矯雄風, 一陷阿蒙之手, 恨不得吞江東者, 關雲長也. ... 是何誠貫於石, 而不感於人也? 冤哉! 痛哉! ... 衣帶有贊, 從容就死, 可憐! 文天祥. 背負六尺, 與國偕亡, 哀哉! 陸秀夫.

의 오추마(烏騅馬)로 천하를 횡행하며 8년 전쟁을 치르더니 오강(烏江)의 물결에 꿈이 깨어졌으며, 회음(淮陰) 남아 한신(韓臣)은 해의(解衣)의 은혜에 감복하여 백만의 군사를 연계하여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빼앗겼으며, '나는 새 다하면 활은 감추어진다.'는 격으로 마침내 아녀자의 손에 죽었도다.¹³⁾

천군이 조고대에 앉아 장렬문으로 들어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내용이다. 인용한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은 형가, 항우, 한신이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적 행적은 앞서 충의문을 통해 입장하던 인물들과는 사뭇 다르다. 형가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객이고, 항우는 유방과 천하의 패권을 다툰 패도적 인물이며, 한신은 유방의 해의에 감사해하며 전장을 누볐지만 중국에는 모반의 뜻에 걸려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이들의 행적은 절대적 진리인 의리의 실천자, 앞서 말한 의에서 나아가 인을 이룬 이들의 행실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들의 행적은 개세적인 영웅 혹은 용지를 품은 인물의 좌절이란 측면이 강하다.

동시에 여기에 이르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정체는 모호해져 버린다. 의제를 살해한 인물로 사림의 지탄을 받는 항우를 시름의 구체적 내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리나 성리학적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당치 않은 것이 된다. 지탄의 대상이 시름이 되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름이란 것이 천도가 실현되지 않는 역사 현장의 모순에 고민하는 와중에 형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실 항우로 인한 시름은 “영웅(英勇)이 절등하고 견식이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천명(天命)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과 민심이 이미 떠났음을 알자 스스로 자기 몸을 가볍게 버리니 그 죽음은 더욱 열렬(熱烈)하다.”고¹⁴⁾ 한 부분에 자리한다. 정치적 의리나 성리학적 명분론과는 무관한 데서 시름이 존재한다.

요컨대 항우가 시름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굴의 의지”로 치환될 수 있는 열렬한 의지의 소유자가 역사적 현장에서 좌절했기 때문이다. 장렬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끝부분을 “용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공업이 허사로 떨어”진 “다 기록하지 못”할 인물들로 마무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0만 명이 진을 쳐서 이르러 오는 것은 장평의 조(趙)나라 군사이고 30만 명이 진을 쳐서 예두장군(銳頭將軍)이 인솔하고 오는 것은新安(新安)의 진(秦)나라 군사이다. ... 술 마시고 컷바퀴가 불과해져서 질장구를 두드리며 노래를 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허리가 잘리는 모진 형벌을 받는데 이르렀던가? ... 혼탁을 제거하고 맑은 기운을 일으키려고 많은 선비들이 우우 일어서는 것이 시대에 무슨 해가 되기에 내쳐 죽게 만들었던고? ... 분김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전 임금의 복위를 꾀하였으니 하늘에 통한 의리요 고름을 꿰는 충성이었으며 일이 어긋나서 몸을 바치고 말았구나. ... 이 가운데 가장 원한이 고금(古今)에 사무치고 의분이 유명에 절통하여 괴롭고도 괴롭고 슬프고도 슬퍼서 차마 마 못하고 또 차마 말 못할 일이 있다. 제왕(齊王)이 송백(松栢) 속에 내쳐지고 초제(楚帝)가 강물에 죽은 일이 그 일이다.¹⁵⁾

충의문이나 장렬문을 통해 들어오는 인물들이 뿔어내는 시름의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분명

13) 위의 책, 689-690쪽. 死酬知己, 撫尺八匕首, 吟壯士之歌者, 荊卿卿也. 西楚霸王, 以烏騅一騎, 橫行天下, 八年干戈, 夢斷烏江之波, 淮陰男子, 感解衣之恩, 連百萬之衆, 戰勝攻取, 烏盡弓藏, 竟死兒女之手.

14) <靑燈論史>, 烏江賦, 위의 책, 771-783쪽.

15) 위의 책, 691-693쪽. 有四十萬, 爲屯而至者, 長平趙卒也, 有三十萬, 爲屯而銳頭將軍爲首者, 新安秦卒也. ... 酒後耳熱, 拊缶而歌, 何預於世, 而至於腰斬? ... 況激濁揚清, 多士濟濟, 何害於時, 而置於廢死? ... 憤不顧身, 謀復故主, 通天之義, 貫古之忠, 而事誤捐軀. ... 此中, 最有恨同古今, 憤切幽明, 苦苦哀哀, 不忍言不忍言者, 齊王客於松栢, 楚帝死於江中.

하다. 충의지사로 기호화된 천도 구현의 어그러짐이나 역사 속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던 응사의 열렬한 의지로 표상되는 시름의 면모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고문을 통해 들어오는 인물이 표상하는 시름의 편폭은 매우 크다. 30만 혹은 40만에 이르는 병졸들은 전쟁의 와중에 속절없이 죽어간 개아(個我)이다. 이에 반해 양운은 불평한 말을 쏟았다는 이유로 죽었고, 범맹박 등은 청빈한 인물이었는데 당고로 죽임을 당했으며, 이경업과 낙빈왕은 측천무후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해 죽었다. 범맹박의 청빈이나 이경업과 낙빈왕의 “하늘에 통한 의리” 혹은 “고금을 꿰는 충성스런” 인물이란 평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절없이 죽은 무명의 병졸들과는 원통함과 유감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또한 제왕 전건(田建)은 진나라의 꼬임에 빠져 나라와 목숨을 잃은 인물이며, 초나라 의제(義帝)는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항우에 의해 무고히 희생된 인물이다. 이들은 죄없이 죽임을 당한 전형적 인물로 인식된다. 이들 내보인 원통과 유감의 층위는 너무 다르다.

여기에 이르면 시름의 구체적 면모는 한층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무고문을 통해 들어오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현우(賢愚)나 행위의 시비(是非)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희생된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시름을 정의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작가가 시름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으면 물을수록 그 영역이 확장되고, 그 대상이 모호해져 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에 관성자가 “마음이 산란해져 일일이 조목별로 기록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시름 아닌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별리문에 대한 관조(觀照)의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비파의 줄에 흥곡가(鴻鵠歌)는 끼친 한(恨)이 오늘날에 이르러라. 관산(關山)의 달은 청총(靑塚)의 지경에 비추는데 변방의 기러기는 고국의 소식을 끊었구나. ... 비록 신선과 범인의 차이는 있지만 이별의 설움은 고금이 일반이라. 죽궁(竹宮)의 연경 속에 말도 않고 웃지도 않으니 가을바람에 애가 끊어지는 사람이요, 마외파(馬嵬坡) 아래 옥이 깨지고 꽃잎이 날려서 마음 아파 달에서 노닐던 입이시라. ... 겨울 매화를 꺾어든들 보낼 역마를 만나기 어려우며, 금자(錦字)는 하마 이루어졌는데 금고(琴高)를 보낼 길이 없어라. ... 또한 임의 사랑이 식으니 장신궁의 문은 닫힌 지 오래란다. 멀리 헤어진 이별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가까이 둔 이별은 응당 어찌할 건고?16)

인용한 부분은 별리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이별의 종류들 가운데 일부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이별은 어떤 상황에도 존재하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채 고국을 이별하고 떠나야만 하는 경우, [=오손공주, 왕소군] 신선이 되어 인간 세계를 이별하고 떠난 경우, [=정령위]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하는 경우, [=한무제와 이부인, 당현종과 양귀비] 살아서 연인과 이별한 채 소식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 [=두도의 처 소혜] 사랑의 마음이 식어 돌아보지 않게 된 경우 [한무제와 진황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별이 존재한다.

관성자가 “눈물이 마르고 머리털이 다 닳”게 된 것도 그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았음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자는, “인간 세상엔 이별이 많기도 하더라.”라고 하며 하늘나라로 달아난다. 하지만 이별은 인간 세상과 하늘나라를 구분하지 않는다. 관성자가 “견우 직녀를

16) 위의 책, 694-696쪽. 琵琶絃鴻鵠歌, 遺恨到今. 關月留靑塚之鏡, 邊鴻斷故國之信. ... 雖仙凡有殊, 而別意一也. 竹宮煙中, 不言不笑, 腸斷秋風之客, 馬嵬坡下, 玉碎花飛, 傷心遊月之郎. ... 寒梅雖折, 驛使難逢, 錦字已成, 琴高無便. ... 又有君王寵歇, 久閉長信, 遠別離無奈何, 近別離當若爲?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별의 편만함을 말하기 위한 구절이다. 이별이 인간 세상 이외의 공간에도 존재함을 드러내는 작가의 기지(機智)를, “아름다운 구절”로 평가한 것은 예리한 안목이다.

그러나 시름에 대한 탐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이상에서 열거한 시름의 구체적 면모는 과거의 시공간, 역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름의 진정성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것이라는 데 있다. 또한 시름은 객체화된 대상의 문제가 아닌 주체의 실체적인 문제이다. 이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 시킨다. 성 밖의 한 사람이 관성자를 붙들고, “그대는 어찌 옛날 일만 추억하고 현실을 무시하며, 저승의 귀신 장부를 점검하는 일만 하고 이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가?”라고 일갈하는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시름의 실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적 상황에서 주체가 부딪친 시름 역시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시름 탐색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객체에서 주체로 다각화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난데없는 작가의 개입으로 인한 구성의 파탄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시름의 정체를 다각적으로 성찰하는 작가의 세심한 배려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더욱이 이는 앞부분의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기발한 시선 이동과 대비되어 주체적 시름의 탐색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것은 시름이 그것이 인간 삶의 특정 국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若人足稱奇男子
十五年前通六韜
塵生古匣劍未試
目極關河秋氣高
中年好讀孔氏書
向來所耻非縑袍
牛歌不入齊王耳
鬢上光陰昏又朝

이 사람 기남자라고 일컬음직 하이
십오 세 되기 전에 육도를 통달했더라고.
날카로운 칼 칼집에다 먼지 낀 채 꽂아 두고
가을 기운 소슬한데 변방 산하 둘러보네.
중년에는 성현의 글 즐겨서 읽었더니
허름한 옷 입는 거야 부끄러운 바 아니로세.
우가를 불러서 제왕의 귀에 들리게 못하는데
귀밑으로 흐르는 세월은 저물자 아침일레.¹⁷⁾

성 밖의 한 사람이 읊은 노래다. 성 밖의 한 사람은 임제 자신을 가리키며, “우가(牛歌)를 불러 제왕의 귀에 들리게 못하는 데”라는 표현은 그의 불우를 드러내는 구절로 해석된다. 충분히 타당한 진술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적 전개와 특징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 온당한 감상 방법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시상의 전개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우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시는 ‘웅지를 품을 영웅의 좌절[=육도와 먼지 낀 칼] → 천도를 실현하려는 지사의 불우[=성현과 허름한 옷] → 부질없이 늙어가는 인생[=귀밑머리와 세월]’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의 전개는 각각의 사실을 나열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인생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시름을 의미한다. 역사 현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시름의 양상이 충의, 장렬, 무고, 별리로 범주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시름이 몇 개의 층위로 나뉘어 제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각의 시름은 다른 것이지만, 이들 모두가 한 개인의 시름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점에서 하나인 것이다.

시름에 대한 탐색은 발생이나 내용에 대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시름의 효과나 형상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졌다. <수성지>에는 시름이 쌓이기 직전의 상태를, “주제님께 비분강개(悲憤慷慨)해서 저만 잘난 체하고 저만 고상한 체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역사 현실의 모

17) 위의 책, 697-698쪽.

순에 대해 분노해하면서 속된 세상을 거만하게 비웃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마음이 점점 세상과 이격(離隔)되는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름이 쌓이는 직전의 상황이 되면, “초사를 소리 높여 읊게 하고는 전혀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게¹⁸⁾ 된다.

이성을 쌓는데 있어서는 흙과 돌을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역사를 하는데 돌을 굴러오고 흙을 나르는 등의 수고로움 또한 들지 않았다. 성의 규모는 크다고 보면 붙여 있는 자리가 너무도 좁고 작다고 보면 그 안에 포괄된 것이 너무도 많다. 없는 것 같은데 있고 형체를 이루지 않았는데 형체가 있다. 북으로는 태산을 응거하고 남으로는 바다에 연결되었으며, 지맥은 정히 아미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울퉁불퉁 팽창하여 시름과 원한이 온통 모여든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시름의 성’이라 이름 붙였다.¹⁹⁾

쌓여가는 시름의 외형적 형상이다. 그런데 그 형상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먼저 성을 쌓는데 흙이나 돌과 같은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시름의 성’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님을 뜻한다. 이것은 성의 규모를 설명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의 규모는 크다고 하자면 자리한 공간이 너무 작고, 작다고 하자면 성에 포괄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작다고도 크다고도 못할 노릇이다. 이것은 시름의 성에 대한 설명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더욱이 “없는 것 같은데 있고 형체를 이루지 않았는데 형체가 있”다는 말은 시름의 성의 현묘함과 비규정성, 비정형성을 드러낸다. 시름의 성은 실체가 없는 실체이고, 규정을 거부하는 그 무엇인 것이다. 시름의 성을 논리와 언어로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형상은 합리적 사고로는 알아챌 수 없는 것이다. ‘시름’은 특정화할 수 없는 개체이다.

천군은 단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네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조고대 위에 좌정하였다. 때 마침 처량한 바람이 으시시 불어오고 처량한 달빛이 쓸쓸한데 네 문으로 사람들이 원한을 머금고 분통을 품고서 일제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천군은 처연한 표정을 짓고 앉아서 관성자를 시켜 대략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였다.²⁰⁾

형상에 대한 설명의 불가능의 이후, 천군은 시름의 본령을 응시한다. 천군의 응시는 관성자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다. 관성자의 시름의 면면에 대한 기록은 시름의 본령을 면밀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곱씹는 과정이다. 천군은 ‘시름의 성’에 존재하는 낱낱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함으로써 더욱 완전한 시름에 빠져 든다.

천군이 시름을 곱씹어 보기에 적합한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 처량한 바람이 불고, 달빛은 쓸쓸하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시름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 셈이다. 이런 조건 하에 천군은 각각 네 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시름의 구체적 면모를 찬찬히 음미한다. 충의, 장렬, 무고, 별리라는 항목으로 표상되는 시름의 구체적 면모를 하나하나 되짚어

18) 필자는 <수성지>에서 초사의 문학적 전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초사>와 <수성지>의 문학적 상관성을 구체화할 상황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논의를 보충하겠다. 기왕의 연구 가운데 <수성지>의 <초사> 수용 양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따져 언급한 이는 윤주필이다. (윤주필, 초사 수용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문학연구 10, 한국한문학회, 1987 참조.)

19) 위의 책, 684쪽. 其爲城也, 積不煩於土石, 役何勞於轉輸? 以爲大也, 則所寄之窄, 以爲小也, 則所包之多, 若無而有, 不形而形. 北據泰山, 南連滄海, 地脉正自峩眉山來, 礪礪磊落, 愁恨所聚, 故名之曰愁城.

20) 위의 책, 684쪽. 天君自丹田渡海, 洞開四門, 御于弔古臺上. 于時, 悲風颯颯, 苦月淒淒, 各門之人, 含怨抱憤, 一擁而入. 天君慘然而坐, 命管城子, 記其萬一.

봄으로써, 완벽하게 시름의 세계에 빠져든다. 이로 인하여 천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과 고민에 싸여 우울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정체에 대한 탐색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시름은 발생론적 측면에서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지니며, 형상적 측면에서 규정과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측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록 분(憤)·비(悲)·한(恨)으로 시름을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하지만, 시름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름은 불가해한 그 무엇이다. 또한 시름은 그 구체적 면모를 지적하여 설명할 수 없는 불가측한 그 무엇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시름이란 불가해한 존재론적 본질로서의 그 무엇인 것이다. 작가는 <수성지>를 통해서 시름이란 존재론적 본원(本源)의 영역에 속하는 그 무엇임을 진지하게 탐색하였다.

3. 시름에 대한 대응과 그 의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름의 발생이나 형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다채로운 측면에서 시름의 정체를 조감함으로써 그것이 불가해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다만 이런 인식은 곧 혼란과 모순에의 직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상에 대한 명징한 인식의 부재는 곧 대상을 완전히 풀어낼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름은 합리적 방법으로 풀어 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님을 감지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시름을 풀어버리는 술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중세적 이념과는 상치되는 모순된 행위로 이를 통해 모순된 현실을 풍자했다거나, 술로는 시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도록 설정한 것이야말로 역설 혹은 우의의 수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풍자, 역설, 우의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시름을 술로 푸는 것을 작가가 고안한 문학적 기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 뒤로 이내 작(爵)을 매매한 일 때문에 청백한 이름에 다소 누를 끼쳤으나 역시 그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양은 자못 청허(淸虛)를 숭상하고 부의(浮義: 義는 蟻와 통함)를 좋아하여 청(淸)이 되었건 탁(濁)이 되었건 농치는 바가 없으며 여자들을 아주 가까이하지만 그러나 준조(尊俎)에서 절충하는 도리가 있다 하옵니다.²¹⁾

술의 특징에 대한 주인옹의 계(啓)이다. 주인옹의 아뢰는 술이 지닌 이중적 속성과 화(和)의 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주인옹은 시름에 사로잡힌 천군에게 “근본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거나 “만물이 내[천군; 필자주]게 갖추어 있음을 상기하여 중화를 이루”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백한 이름에 누가 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모두 잃지 않”는 어정쩡한 술을 천거한다. 주인옹 역시 시름에 합리적인 무엇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름을 술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 대응의 부재란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술로 시름에 대응하는 것에는 풍자나 역설, 우의 등의 문학적 코드가 내장

21) 위의 책, 699쪽. 其後, 卽以買爵事, 小累淸名, 而亦非其本心也. 今襄但尙淸虛, 好浮義-音蟻-, 於淸濁無所失, 多近婦人, 然有折衝尊俎之氣.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술을 등장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술을 통한 대응이 작가가 고안한 고도의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면 술이 지닌 풍자나 역설, 우의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 시름과 술은 항상 서로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 쌍으로 존재했다. 양자는 언제나 자연스런 연상 관계에 있다.

萬事悠悠一夢間	悠悠한 온갖 일들 一夢間이니
勸君高臥且加餐	그대 높이 누워 음식 또한 잘 드시게
身如逆旅心爲客	몸은 여관이요 마음은 손님이니
世似長途愁是關	긴 여정같은 세상살이 시름이 장애라네
得酒莫辭多酩酊	술 얻어 사양 않고 취토록 마시고
吟詩且欲喜盤桓	시 읊조리고 서성이며 즐기고 싶네.
晚來雨過山堂靜	저물녘 비 지나가고 산당이 고요하니
搔首長歌澧有蘭 ²²⁾	머리 긁적이며 <구가>의 한 곡 길게 노래하네.

김시습의 <유유(悠悠)>란 작품이다. 인생은 꿈으로 보고, 그러한 꿈같은 삶을 즐기겠노라는 것이 주지이다. 그런데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제 4구와 5구이다. 여기서 작가는 긴 여정과 같은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시름'이니 술을 얻어 취하도록 마시거나 시를 읊조리며 서성대겠노라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작품의 초점이 시름과 술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름은 꿈같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난관이 되며, 그 난관[=시름]을 극복하고 꿈같은 삶을 즐길 방법으로 음주와 음시를 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술을 마시는 것은 시름을 푸는 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시름을 풀어버릴 방법으로 음주를 택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선택이 아닌 것이다.

止酒愁雲集	술 마시기 그만두니 시름이 구름처럼 모이고
搜詩鬢雪侵	시를 짓노라니 귀밑머리 눈처럼 하얗네.
開窓聞鴈過	창문 열고 기러기 지나는 소리를 들으며
呼燭坐更沈	촛불 대령케 하여 깊은 밤에 앉아 있네.
白露團衰草	흰 이슬은 시든 풀잎에 알알이 맺혀 있고
明河沒遠岑	밝은 은하수 먼 산봉우리로 잠겨 가네.
寒蛩鳴不盡	찬 귀뚜라미 소리 그치지 않으니
摠是說秋心 ²³⁾	이 모두가 추심(秋心)을 말한다네.

신광한의 작품이다. 사람이 살면서 갖게 되는 시름을 총괄하여 '秋心'[=愁]이란 시어로 집약하였다. 인생의 비애를 상실과 조락으로 표상되는 가을의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다. 시든 풀잎, 밝은 은하수, 찬 귀뚜라미 들은 가을의 심상을 대변함과 동시에 인생의 시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근심과 우수의 정서는 <수성지>의 시름의 정서와 별반 다를 것 없다. 삶 자체에서 발생하는 시름의 정서와 불가해한 존재론적 본질의 영역에 존재하는 시름의 정서는 그 자체가 동질적이다.

그런데 제1구의 술 마시기 그만두니 시름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했다. 이는 술로 시름을 풀 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술이 없으면 시름이 생기니 술을 마셔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22) <悠悠>, 梅月堂集 詩集 卷一.
23) <秋夜不寐>, 企齋集 別集 卷五.

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술로는 '시름'을 완전히 풀어버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술은 시름 해결의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시름은 술을 안 마시면 언제든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가 시름을 풀어내는 최선의 조치인 것 또한 분명하다.

이렇게 술을 마심으로써 인생의 비탄을 잊으려 한다는 진술은 중국의 낭만주의적 성향의 작품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며²⁴⁾ 이것은 임제가 살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름은 술로 풀어낼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이 존재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술을 시름 해소의 방법으로 동원한 것은 '합리적 대응의 부재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술을 등장시킨 것의 일반적인 인식의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해서 작품 전체의 가치나 의미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성지>에서 술이 등장하는 이후 부분에서 작품의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²⁵⁾ 즉 술이 등장한 이후, 천군과 시름을 중심으로 작품의 초점이 술[=국양장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고, 서술 태도 또한 박진감 있고 기발한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술의 등장과 함께 작품은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고 있다.

장군은 해구로부터 병을 거꾸로 세워 내리 쏟으니 그 형세는 대쪽을 쪼개는 것 같았다. 공격을 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싸움을 하지 않아도 온 성안이 벌써 항복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장군은 무력을 과시하고 위세를 날려 혹은 산개하여 외곽을 포위하고 혹은 집결하여 내부에 진을 치나 형세는 마치 바다에 조수가 일어나고 폭우로 강물이 넘치는 것 같았다.²⁶⁾

국양장군이 시름의 성을 공격하는 부분으로, 술 마시는 장면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진감 넘치게 급박한 서술이 두드러진다. 그 묘사의 방식은 연의소설의 전투 장면과 방불하다. 한마디로 국양의 진법이나 격문 등은 군담의 외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삼국지연의>의 수용이 보인다²⁷⁾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국양장군과 시름의 성 사이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 굴원은 벌써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달아났고 대부분의 성중 안 사람들은 격문만으로 항복할 마음을 품었다. 시름의 성을 서술하던 부분의 느릿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빠져있던 독자라면 으레 시름의 성이 끈질기게 저항하리라고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저항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저항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착상과 표현의 기발함, 의인화된 재치있는 표현으로 급박한 서술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가관이다.

천군은 영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벌써 구름은 사라지고 안개는 걷혔는데 살랑거리는 바람에 햇빛이 나른하다. 전번의 모든 구슬픈 일들은 즐거움으로 바뀌어 원한은 잊혀지고 한탄은 사라지고 분은 풀리고 노여움은 가시었으니 불평불만하던 자 화평하게 되고 울화로 답답하던 자 기꺼워지고 신음하던 자 즐거워 노래하고 팔을 걷어붙이던 자 너울너울 춤추는 것이었다.²⁸⁾

24) 심경호 역, 가와이 고조, 중국 고전시, 계보의 시학, 이회, 2005 참조.

25) 이와 관련된 윤주필의 논의는 주목할만하다. 그는 이를 두고 '가전의 구성'이라고 하며, 그것이 지닌 이중적 의미를 치밀하게 논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으로 표현된 표면과 그것이 결국은 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면이 지닌 파격을 지적하며, 여기에 <수성지>의 희필적 골재미가 존재한다고 했다. (윤주필, 앞의 논문, 69-79쪽.)

26) 앞의 책, 706쪽. 將軍自海口，如建瓴而下，勢若破竹，不攻而城門自開，不戰而城中已降。將軍乃耀武揚威，或散而圍於外，或聚而陣於內，勢如潮生海國，雨漲江城。

27)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전개와 우연문학,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12.

국양이 수성을 공격한 후의 상황, 즉 술이 몸에 들어간 후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술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우울한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봄바람과 햇빛이 가득한 것처럼 변한다. 시름의 개별적 분자였던 분(憤), 비(悲), 한(恨)은 삽시간에 즐거움으로 바뀌고, 탄(歎), 울(鬱)은 완전히 사라진다. 시름의 탐색이 그토록 길고 지루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한다면, 그 변화는 너무 짧고 갑작스럽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움은 전반부의 진지성과 충돌하면서 응축된 에너지처럼 폭발한다. 그리고 이런 폭발로 인해 천군은 갑작스럽고 돌연하게 안에 완전한 전복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 변화는 그다지 논리적이거나 계기성을 가지지 못한다. 술이 조수가 일고 폭우로 강물이 넘치듯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천군이 영대에 올라가서 화창한 기운을 맘껏 누리는 것 사이의 긴밀성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한마디로 천군은 난데없는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성 공략의 안이한” 처리라는 지적이나 “주제의 구체적 현시라기보다는 내용의 구조화에 따라 개괄적으로 설명한 느낌”이라는²⁹⁾ 평가가 존재한다. 폭발적이고 돌연한 전복은 계기의 빈약을 동반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을 두고 가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의 나열과 같은 편철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지만 술이 등장한 이후 “내용의 전위”나 “작품에서 유지해 왔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³⁰⁾ 지적의 타당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사적 정합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술의 등장 이후, <수성지>는 정연한 구성과 논리적 체계성에의 파괴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런 파괴는 기발한 착상과 표현,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격식적이고 미려한 문체를³¹⁾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의 다양한 글쓰기를 동원하여 정연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술의 등장은 ‘합리적 대응의 파탄’이며, 이를 서술하는 다양한 문체는 정합적인 구성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는 시름이 이성의 합리적 판단과 인식을 거부하는 본원적인 그 무엇이었던 것처럼, 그 대응도 합리적일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시름이 이성적 질서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처럼, 시름에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불가능함을 술과 문체를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체계적 논리성을 파괴하는 갑작스러운 전복은 시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되는 것이다.

정체를 규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한 혼란은 비정합적이고 전복적인 돌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시름을 푸는 방식이 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 이후 급격한 문체의 변화가 보이는 것도 시름의 불가해, 불가측성 때문이다. 합리적 규정을 거부했던 그 무엇이 초래한 어지러움은 갑작스럽고 돌연한 대응으로만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의 등장을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나, 문체의 돌변이 갑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인과론적 계기성이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시름 탐색의 여정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28) 앞의 책, 706-707쪽. 天君登靈臺望見, 雲消霧卷, 惠風遲日, 向之悲者權, 苦者樂, 怨者忘, 恨者消, 憤者洩, 怒者喜, 悒悒者怡怡, 鬱鬱者忻忻, 呻吟者謳歌, 扼腕者蹈舞.

29) <수성지>의 구성적 파탄에 대해서는 이동근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동근, 수성지,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일지사, 1990, 57쪽.)

30) 이동근, 위의 논문, 58쪽.

31) 기발한 착상과 격식적이고 미려한 표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문헌의 김혜숙, 심호택, 이동근, 정학성, 윤주필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4. 맺는말

본고는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정체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제에게 시름의 의미가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일체의 배제된 매우 제한된 논의였다. 그러나 이런 고찰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의 연구가 지나치게 작가의 현실과 이념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졌다. 이는 자칫 작품의 해석이 그 실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에 의존한 본 고찰은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탐색과 그 대응은 존재론적 성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6세기 문학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제는 그가 마주한 시름의 정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인간의 본원적인 그 무엇인 시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존재의 본질적 영역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다.

이런 탐색은 이후 16세기 문단의 낭만주의적 문학 경향에 동반된 것으로, 이후 서사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선도적 구실을 했다. <주생전>이나 <운영전>의 자장도 <수성지>의 탐색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논문>

- 권순금,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13, 고전문학회, 1998.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론총, 제3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12.
김근태, 조선초기 소설의 갈래 교섭 양상, 송실대 석논, 1997.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징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통권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2.
김유미, 수성지의 서술 구조와 주제 연구, 이대 석논, 2004.
김은수, 천군소설의 이기철학, 광주개방대학 논문집 2, 1985.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고전문학회 2003. 12.
남정율, 수성지연구, 한양대 석논, 1990.
문범두, 수성지의 구조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29, 영남어문학회, 1996. 6.
박지연, 수성지연구, 성신여대 석논, 1999.
소재영, 백호임제론, 민족문화연구 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4.
심호택, 임백호문학연구, 경북대 석논, 1977.
안병렬, 가전체 소설 작품연구, 논문집 7, 안동대학, 1985.
안병설, 천군계 우연 소설의 형성 과정과 특성, 중국학논총 7,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1991. 2.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9, 대구대 외국어교육연구소, 1994. 2.
오은영, 백호 임제 소설연구-인물특성과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 1998.
윤주필, 수성지의 3단구성과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3, 한국한문학회, 1990.
윤주필, 초사 수용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문학연구 10, 한국한문학회, 1987.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 이동근, 수성지 재고, 논문집 31, 육군제3사관학교, 1990.
- 이동근, 수성지,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일지사, 1990.
- 이종국, 한국 서사문학에 투영된 연기 사상연구, 강남대, 2000.
-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예의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전개와 우언문학,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정승표, 임제와 그의 한문소설, 경남대 교육대학원, 1985.
- 정학성, 우언 양식의 서사 구조와 비판정신, 동양학 제38집, 단대 동양학연구소, 2005. 8.
-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 정학성, 임백호문학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 조구호, 천군전과 수성지 비교연구, 남명학연구논총 제12집,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3. 6.
- 조덕근, 수성지연구, 숭실대 석논, 1988.
- 황일근, 임제문학에 나타난 욕망과 시름의 양상, 연세대 대학원 석논, 2005.
- 황패강, 수성지와 원생몽유록,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출판부, 1983.

(제1발표 토론)

(제2발표)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이 성 민(성균관대)

<목 차>

1. 머리말
2. 竹枝詞로서의 「西京感述」
3. 「西京感述」의 내용
 - 1) 歴史的 古都로서의 平壤
 - 2) 平壤의 歴史的 史實과 故事
 - 3) 平壤의 民間風俗에 대한 記錄
4. 「西京感述」의 창작동기
 - 1) 歴史記錄에 대한 관심
 - 2) 家門과 國家의 몰락에 대한 悔恨
5. 맺음말

1. 머리말

汾西 朴瀾(1592~1645)는 그의 생몰년이 말해주듯,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피난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전쟁 속에서 보내야 했으며, 뒤에는 병자호란까지 겪었다. 또 부친 朴東亮(1569~1635)의 계속되는 유배생활을 따라다니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신분은 宣祖의 駙馬였지만 그것이 그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다. 한때 文衡을 말을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駙馬라는 신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다.³²⁾ 박미는 자신의 능력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莊子』에 몰입하였다. 『장자』에 나타나는 ‘棄世’와 ‘厭世’의 사상은 현실에서 좌절한 박미에게 處世의 대안이 되어 주었다. 『장자』와 박미 문학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일은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미는 秦漢古文을 산문 창작의 모범으로 삼았던 ‘秦漢古文派’의 핵심적 인물로 주

32) 朴世采, 「伯父錦陽君朴公行狀」, 『汾西集』 부록(『韓國歷代文集叢書』 2472, 250면). “會丁丑文衡缺, 往返辭命, 責望尤重, 張公謂崔完城相宜請於朝, 以某及東陽二公爲之, 完城以破格爲難, 遂止.” 『분서집』은 『韓國歷代文集叢書』 2471~2472(경인문화사, 1997)에 수록되어 있다. 『분서집』의 면수는 『한국역대문집총서』의 면수를 따라 2471권의 면수는 ‘1-〇면’으로 2472권의 면수는 ‘2-〇면’으로 표시하며, 이하 출전은 생략한다.

목할 필요가 있다.³³⁾ 그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우리 문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明代 前後七子 문학과 진한고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창작에 적극 실천하려 하였다. 박미가 산문 창작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³⁴⁾ 그의 詩的 역량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총 597수의 적지 않은 시를 남겼고, 나아가 盛唐 이전의 시를 직접 선별하여 詩選集인 『手篇』³⁵⁾을 엮었다는 것은 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明代 문학과 민감하게 반응했던 당시 문단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산문가이자 시인으로서 박미는 반드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문이나 시 모든 분야에서 박미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한고문에 경도되었던 인물로 알려져, 그 모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그의 생애와 문학적 경향 등이 검토된 정도에 불과하다.³⁶⁾

본고는 박미 문학 전반에 대한 고찰의 과정으로 그의 「西京感述」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1638년 47세의 나이로 冬至兼聖節使가 되어 瀋陽으로 갈 때, 평양에 들러 지은 것이다. 칠언절구 연작 30수로 이루어져 있고 평양의 역사적 사실과 고사·승경·풍속 등 다채로운 토속적 정취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竹枝詞’라고 할 수 있다. 또 각 시에 달려있는 상세한 주석은 역사적 자료로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진한고문과 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토속적 정취는, 그들의 작품이 단순히 표절과 모방의 나열일 것이라는 선입전에 약간의 교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자료의 성격을 개괄한다는 의미에서 竹枝詞로서 「서경감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³⁷⁾ 그리고 그의 학문적 경향, 생애 등과 관련하여 「서경감술」의 창작동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竹枝詞로서의 「서경감술」

죽지사는 당나라의 劉禹錫이 창작하여 전파되었고, 중국 문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특히 조

33) 진한고문파에 대해서는 姜明官,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韓國漢文學研究』 제18집, 韓國漢文學會, 1995); 姜明官, 「16세기 17세기 초 秦漢古文派의 산문비평론」(『大東文化研究』 제41輯, 大東文化研究院, 2002) 참조. 이 논문에서는 박미를 진한고문파의 일원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의 문학적 지향으로 볼 때, 반드시 진한고문파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인물이다.

34) 南克寬, 『夢嚙集』, 「端居日記」(『韓國文集叢刊』 209, 304면). “王·李之波東漸, … 專學文者, 月汀·玄軒·淸陰·汾西·東淮·春沼·息菴也, 谿谷亦略有染焉.” 이하 『韓國文集叢刊』은 『문충』으로 약칭한다.

35) 책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서문을 통해 그 대체를 짐작할 수 있다. 盛唐 이전의 시를 詩體別로 뽑고 明나라 胡應麟의 『詩藪』에서 발췌한 要語를 각 시체 앞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서집』 권9, 「手篇序」, 1-337~338면. “乃於子舍餘暇, 錄唐人盛李以上, 七言歌行·七言律·五七言絕·五言排律·五言律, 各數十首或百餘首, 而五言律亦頗闌入中李, 五言排律並取楊景山一篇, 七言排律獨取王仲初一篇, 四言五言古全取選詩, 而四言上及二章, 皆手自繕寫, 冠以元瑞要語, 目以指南爲卷者, 堇堇上下, 以取便於置橐中. 故所錄絕妙, 雖謂之烹鼎一臠, 烏足以鬯實究詣也. 合而命之曰手編者, 以見夫馬上枕上, 皆可手以讀之, 而造次必於是也.”

36) 줄고, 「汾西 朴淵의 삶과 文學的 志向」(『漢文學報』 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박미는 자기와 절친했던 다섯 명의 문인들에게 「五子詩」를 지어 수창한 일이 있는데, 「오자시」를 논하는 과정에서 박미가 다루어졌다. 金垠廷, 「「五子詩」 창작배경 및 和答詩 연구」, 『震檀學報』 96, 震檀學會, 2003; 朴天圭, 「「五子詩」 연구」, 『漢文學論集』 第3輯, 檀國大學校 漢文學會, 1985 참조.

37) 「서경감술」 총 30수 중 제13수에서 19수까지는 평양의 勝景을 노래한 것으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제 19수에서 池彦忠의 정자와 그곳의 풍광을 평양의 최고로 꼽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참고로 시와 주석을 소개한다. “池家亭子下游西, 巖縫天成曲曲蹊. 任是三更山月黑, 梨花如雪向人低.” 주석 “中貴人池彦忠亭舍在下游西, 勝絕, 當爲西京第一, 而又有古梨三樹, 花燭夜色.”

선후기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원이나 명칭은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³⁸⁾, 우리의 경우 樂府詩 연구에서 죽지사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³⁹⁾ 하지만 죽지사는 칠언절구체의 연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각 지방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故事 및 風俗 등이 내용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황위주 교수는 16·17세기 우리나라 樂府詩의 전통을 살피면서, 16세기에 출현한 柳希齡(1480~?)의 『詩林樂府』와 車天輅(1556~1615)의 『樂府新聲』에 수록된 작품을 검토하였다. 이들 두 악부시집은 史話와 故事를 작품화하고, 사랑·이별과 같은 여류감정, 전쟁고사, 민간 풍속 등 采詩에 바탕을 둔 前代 악부시의 핵심적 특징을 잘 구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악부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새로운 측면으로, 宮詞와 竹枝詞를 중요한 악부시 경향의 하나로 부각시킨 점, 칠언절구의 악부시적 특징과 기능을 인식하고 하나의 작품적 전형으로서 정립시키고자 했던 점을 거론하였다.⁴⁰⁾ 16세기 문인들은 죽지사를 악부의 중요한 경향의 하나로 생각하였으며, 악부시 창작에 칠언절구를 많이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미의 「서경감술」은 당시 문단 풍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의 역사적 사실과 고사, 승경, 풍속 등을 내용으로 선택하여 죽지사 창작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제목에서 '竹枝'를 표방하지 않고 칠언절구 형태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서경감술」은 「분서집」의 편차 상 칠언절구 항목에 들어가 있고, 韻字의 운용이나 平仄의 안배를 검토해 보았을 때 칠언절구 근체시의 율격에도 대체로 잘 들어맞고 있다. 따라서 「서경감술」은 當代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지사를 비롯한 악부시 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자료로서 그 일차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한편 「서경감술」은 30편 각각의 詩에 자세한 주석을 붙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죽지사는 明代에 오면 각 지역의 풍토를 노래한 대형의 연작시로 창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또한 각 시 뒤에 작가가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붙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석들은 해당 지역의 풍물과 풍속, 혹은 해당 시대의 정치·사회적 사건이나 세태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⁴²⁾

「서경감술」에 붙은 자세한 주석은, 역사 기록에 대한 박미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제된 형태의 칠언절구로 시를 지으면서도, 시 자체가 가지는 미적 특징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을 묘사한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기록'적 성격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38) 洪寅杓, 「竹枝詞 研究」, 『中國學報』 제33집, 韓國中國學會, 1993 ; 朴現圭, 「中國 初期 竹枝詞攷」, 『中語中文學』 제16집, 韓國中語中文學會, 1994 ; 朴仁成, 「唐代 竹枝詞 析論」, 『中國語文論叢』 제23집, 中國語文研究會, 2002 ; 신하운,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中語中文學』 제36집, 韓國中語中文學會, 2005 등.

39) 대표적 성과로는 심경호, 「海東樂府體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1 ; 張孝鉉, 「朝鮮 後期 竹枝詞 研究」, 『韓國學報』 34, 일지사, 1984 ; 黃潤周, 「16·17世紀 樂府詩의 出現動因과 展開過程」, 『韓國漢文學研究』 제12집, 韓國漢文學會, 1989 ; 박혜숙, 「形成期の 韓國樂府詩 研究」, 한길사, 1991 ; 安大會, 「韓國 樂府詩의 장르적 성격」, 『韓國詩歌研究』 1, 韓國詩歌學會, 1997 ; 金明淳, 「朝鮮前期 紀俗詩 研究」, 『大東漢文學』 21집, 大東漢文學會, 2003 등을 들 수 있다.

40) 황위주, 앞의 논문, 245~261면 참조.

41) 張裕昇은, 17세기 문인들이 古詩와 古樂府의 민간적 정조를 수용함으로써 조선 후기 한시의 변모를 豫示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唐代에 활발히 창작된 죽지사를 전범으로 조선 특유의 민간 정서를 구현한 작품으로 박미의 「서경감술」을 언급한 바 있다(「水色 許禱의 擬古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304면 ; 張裕昇, 「17세기 古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2002, 79~80면). 「서경감술」에 대한 본격적 검토는 아니었지만, 그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2) 신하운, 앞의 논문, 235~238면 참조.

대동강에서의 ‘뱃놀이’와 ‘썰매타기’, 端午의 ‘그네타기’, 석가탄신일의 ‘연등행사’, 처녀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 한여름에 갈증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蜜蓴’과 ‘蓮葉酒’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風俗誌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3. 「서경감술」의 내용

2) 역사적 古都로서의 平壤

檀木 아래 神人이 처음 도읍 정한 곳,
아직도 古城 모퉁이에 그 사당 남아 있네.
모르겠도다, 그 때 당시 阿斯達에서도
수염 잡았다가 떨어진 자 있지는 않았는지.

檀下神人始此都
至今遺廟古城隅
不知當日阿斯達
亦有攀髯墮者無⁴⁴⁾

평양의 상징적 의미는 檀君이 처음 도읍을 정하여 조선을 개국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미 역시 그 점을 인식하고 「서경감술」의 첫 수에 단군의 옛 사당과, 뒷날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가 신선이 되었던 상황을 노래하였다. 시 원문의 ‘攀髯’은, 『史記·封禪書』의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黃帝가 荊山 아래에서 寶鼎의 주조를 마치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고, 황제는 그 용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한다. 그때 황제의 신하들 70여 명은 용을 타고 함께 올라갔으나, 나머지 신하들은 용의 수염에 매달렸다가 그 수염이 빠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始祖인 黃帝와 조선의 檀君을 나란히 거론하여 우리 민족의 발상지로서 평양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단군과 함께 평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箕子이다. 제2수에서 5수까지 기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자의 지팡이와 묘, 箕子井, 井田制 등이 그 소재로 등장한다. 다음은 평양에 남아있던 기자의 井田을 읊은 시와 그 주석이다.

周나라의 정전제 孟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상세함 다 알지 못했었네.
舍韞門 밖을 한 번 바라보셨더니,
십리의 들판이 바로 商田이었네.

周家井制出鄒賢
猶是其詳不得全
試向舍韞門外望
平郊十里卽商田⁴⁵⁾

평양부의 정전은 두 개의 ‘田’字를 겹쳐 놓은 형태로 가운데가 公田인데, 參議 韓百謙 公께서 직접 헤아리고 살펴본 것이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孟子께서 말씀하신 井田은 周나라의 제도이며, 평양의 제도는 실제로 商나라의 제도인 것이다.⁴⁶⁾

孟子는 井田制를 이야기하면서, “殷나라 사람은 70畝를 주어 助法을 실시하였으며, 주나라 사람은 100畝를 주어 徹法을 실시하였다.”라고 하였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900畝의 토지를 井자로 나누어 가운데를 公田으로 하여 공동경작하고 나머지를 여덟 가구에게 100畝씩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고 하였다.⁴⁷⁾ 그런데 『東國地理志』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韓百

43) 여기에 대해서는 「서경감술」의 내용을 살피는 장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44) 『분서집』 권8, 1-272면.

45) 『분서집』 권8, 1-273면.

46) “此府井田, 疊二田字, 中間爲公田, 韓參議百謙公, 親自量度, 蓋如是, 則孟子所謂井田, 卽周制, 而此實商田云.”

謙(1552~1615)은 1607년 평안도 관찰사인 동생 浚謙을 따라 평양에 가서,箕子の 遺田을 실측하여 「箕田圖」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殷나라의 토지제도는 田字形이며, 넓이가 70畝임을 고증해 내었다. 또 「箕田遺制說」을 지어 『맹자』에 언급된 井字形의 토지제도는 주나라의 제도이며,箕子の 토지제도가 井田制였다는 기존의 학설을 부정하였다.⁴⁸⁾ 임진왜란 후 무너진 조선사회의 정치·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가장 긴급하다는 현실인식과 밀접히 연관된 이러한 인식은, 이후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 개혁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⁹⁾ 박미는 시와 주석을 통해 한백겸의 학설을 수용하고, 역사적 고도로서의 평양에 기자가 직접 다스렸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⁵⁰⁾

기자의 서술을 마친 박미는 고구려의 도움으로서 평양을 노래한다. 제6수이다.

고구려의 건국은 漢나라 鴻嘉 때,
궁궐의 유허를 초목이 막고 있네.
슬프다 乙支文德의 죽음이며,
나라 망한 것 ‘後庭花’ 때문 아니라네.

高句麗起漢鴻嘉
宮殿遺墟草樹遮
惆愴乙支文德死
國亡非爲後庭花⁵¹⁾

이 시는 『明詩綜』 권96에도 실려 있는 작품으로, 첫 구절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착오가 있음을 박미의 5세손인 燕巖 朴趾源이 지적한 바 있다. 漢나라 鴻嘉는 百濟의 건국시기였기 때문이다.⁵²⁾ 3·4구에서는 隋나라의 백만 대병을 물리쳤던 을지문덕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구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런데 박미는 고구려의 멸망이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의 ‘後庭花’는 陳나라의 後主가 지어 불렀다는 ‘玉樹後庭花’를 가리키는 것으로, 곡조가 음란하여 진나라 멸망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후정화’ 때문이 아니라는 말은 고구려의 멸망 원인이 외세의 침략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을지문덕과 나·당 연합군의 침략에 멸망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대비시킴으로써, 임진왜란에 왜적의 침략을 막아내었다가 병자호란을 맞아 청나라에 굴복했던 조선의 암울한 상황을 빗대고 있는 듯하다.

2) 평양의 역사적 사실과 고사

박미는 평양의 역사적 사실을 시로 표현하면서, 妙淸의 난, 金富軾과 鄭知常, 또 임진왜란 때의 사건들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였으며 그 고사의 내용을 주석에 상세히 밝혀두었다. 그런데 자신이 견문한 稗說을 작품에 반영하고 그것을 주석에 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고려 때의 시를 살펴보겠다. 제8수이다.

47) 『孟子·滕文公 上』

48) 韓百謙, 『久菴遺稿』 上, 「箕田遺制說」(『문충』 59, 158면). “語曰: ‘中國失禮, 徵在四夷.’ 其不信然歟! 就其地諦審之, 其田形畝法, 與今孟子所論井字之制, 有不同者焉. 其中含毬正陽兩門之間, 區畫最爲分明, 其制皆爲田字形. 田有四區, 區皆七十畝. … 孟子曰: ‘殷人七十而助, 七十畝.’ 本殷人分田之制也. 箕子殷人, 其畫野分田, 宜倣宗國, 其與周制不同, 蓋無疑矣.” 윤희면, 「韓百謙의 學問과 《東國地理誌》著述動機」, 『震檀學報』 63, 1987, 160~161면 참조.

49) 원유한, 「韓百謙의 『東國地理志』成立背景」, 『실학사상연구』 13, 무악실학학회, 1999, 493~494면.

50) 한백겸의 「기자유제설」은 조선후기 實學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기에, 박미가 이 학설을 적극 수용하고 시로 창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51) 『분서집』 권8, 1-274면.

52) 朴趾源, 『燕巖集』 권14, 「避暑錄」, 경인문화사, 1984, 278~279면. “明詩綜, 載余五世祖錦陽君大同館題壁一絕, … 高句麗起非在鴻嘉, 乃漢元帝建昭二年, 成帝鴻嘉三年, 百濟太祖高溫祚都稷山, 先祖偶失點檢.”

처음 강변에 京觀碑⁵³⁾를 세우고
 觀風殿 위에서 마음껏 놀았을 때
 어디선가 귀신의 충고소리 들려오니
 騷壇의 一字師가 될 만했네.

初樹江邊京觀碑
 觀風殿上縱歡時
 無端鬼語加鍼砭
 堪作騷壇一字師⁵⁴⁾

이 시의 소재는 鄭知常이 陰鬼가 되어 나타나 金富軾의 시를 고쳐주었다는 일화이다. 유명한 이야기로 李奎報의 『白雲小說』에 처음 수록되었고, 洪萬宗의 『小華詩評』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⁵⁵⁾ 그런데 박미의 기록은 『백운소설』의 내용과 좀 다르다. 박미는 시의 주석에서 “김부식이 묘청을 격파하고 난 뒤, 觀風殿에 올라 시를 지었다”⁵⁶⁾고 하여 일화가 생겨난 구체적인 시간을 밝혔고, 또 일화의 배경을 觀風殿이라고 하였다. 당시 김부식과 정지상의 일화가 다른 모습으로 향간에 전해지고 있었으며, 박미는 평소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제9수도 그러한 경우이다.

저 높은 文筆高 평평하게 깎아
 천추토록 ‘妬賢’한다는 오명 얻었네.
 ‘긴 둑’과 ‘남포’라 재주와 말솜씨
 天荒을 뒤엎은 그 명성 자자하네.

文筆高峯剗盡平
 千秋留得妬賢聲
 長堤南浦才情語
 直到天荒不昧名⁵⁷⁾

소재는 역시 정지상과 김부식의 일화에서 취하였다. 정지상을 죽인 김부식에 대해 천추에 남을 汚名을 얻었다고 조롱했으며, 정지상의 ‘送人’ 시에 나오는 ‘長堤’와 ‘南浦’의 詩句를 들어 우리 문단에 破天荒의 공을 이룬 업적이라고 극찬하였다. ‘千秋’와 ‘天荒’, ‘妬賢聲’과 ‘不昧名’의 대비를 통해 김부식과 정지상에 대한 일종의 褒貶을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첫 구절의 ‘文筆峯’과 관련하여, 박미는 주석에서 “西京의 강 건너편에 文筆峯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에 서경은 이 봉우리 때문에 文士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이고 이 봉우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인재들의 배출이 시들해지게 되었다”⁵⁸⁾라고 하였다. 文筆峯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자신이 견문한 패설을 창작에 활용한 것이다.

또 제7수에서는 묘청의 난을 소재로 삼았는데, 주석에서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인 곳을 ‘興義驛’이라 하였다.⁵⁹⁾ 『고려사』에는 김부식이 평양으로 출정하기 전 대궐 내에서 정지상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⁶⁰⁾ 같은 시에서 무신의 난과 관련하여 金敦中의 이야기를 소재로

53)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武功을 드러내기 위해 적의 수급을 땅에 묻고 쌓아올린 무덤. 『左傳·宣公』 12년. “君盍築武軍, 而收晉尸以爲京觀.”

54) 『분서집』 권8, 1-275면.

55) 참고로 이 시 부분에 해당하는 『백운소설』의 기록을 옮겨둔다. “後知常爲富軾所誅, 作陰鬼. 富軾一日詠春詩曰: ‘柳色天絲綠, 桃花萬點紅.’ 忽於空中, 鄭鬼批富軾頰, 曰: ‘千絲萬點, 有孰數之也? 何不曰: 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 富軾心頗惡之.” 『小華詩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56) “金富軾既破妙清, 大宴於觀風殿上, 賦詩曰: ‘楊柳千絲綠, 桃花萬點紅.’ 忽空中聞鄭知常語, 曰: ‘汝能算得楊柳之千絲桃花之萬點乎? 何不曰楊柳絲絲綠, 桃花點點紅耶!’”

57) 『분서집』 권8, 1-275면.

58) “西京隔江有峯, 名文筆峯. 自古傳西京以此峯故文士繼起, 金富軾既殺鄭知常, 又剗平此峯以厭之, 致人才衰歇云.”

59) 『분서집』 권8, 1-274면. “未幾, 妙清等據城叛, 金富軾以大將討之, 富軾素嘆知常詩名軋, 已至是, 行師到興義驛, 引知常斬之.”

60) 『高麗史』 권98, 『金富軾列傳』. “富軾與諸相議曰: ‘西都之反, 鄭知常金安白壽翰等與謀, 不去是人, 西都不可得平.’ 諸相深然之, 召知常等三人至, 密諭正純, 使勇士曳出三人, 斬於宮門外, 乃奏之.”

취하기도 했는데, 그 고사의 주석 역시 『고려사』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¹⁾
다음은 조선의 역사를 소재로 선택한 재11수이다.

영남과 관서에 두 斧山이 있으니,
적의 예봉이 이 사이를 다녀갔지.
皇帝의 위엄만으로 妖氛 사라졌으니,
오랑캐⁶²⁾의 방자함 믿을게 못되지.

南嶠西關兩斧山
兇鋒來去此中間
只憑赫怒妖氛淨
莫信雕題恣舞姦⁶³⁾

우연의 일치겠지만, 임란 당시 왜적은 釜山을 침략의 기점으로 삼아 평양까지 진출하였고, 평양의 斧山院에서 명나라의 沈惟敬과 임시 휴전하였다가 그 뒤 李如松이 이끄는 대군에 밀려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된다. 박미는 이 점에 착안하여 영남과 관서에 두 ‘부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왜적이 머물렀다고 하였다.

왜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義州로 피난을 떠난 뒤, 조선의 거듭되는 파병 요청에 의해 명나라에서는 副總兵 祖承訓이 지휘하는 遼東의 군사 3천을 보내었다. 그러나 조승훈의 군대는 1592년 7월 17일 평양에서 왜적의 기습을 받아 괴멸되었고, 조승훈은 다시 遼東으로 돌아가 버렸다. 요동 방어에 위기의식을 느낀 명군은 심유경을 파견하며 왜적을 평양에 묶어두라는 명을 내렸다. 평양성에 들어온 심유경은 명군이 출정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 50일간의 휴전을 제안하였고, 왜적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심유경은 평양에서 십리 되는 곳에 木標를 세우고 “倭人無出標外”, “朝鮮人無入標內”라 쓰고 명나라로 돌아갔다.⁶⁴⁾ 셋째 구에서 ‘황제의 위엄만으로 妖氛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 없이 왜적을 묶어 놓은 심유경의 공을 칭찬하는 말이다. 이 시 아래에 박미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嶺南에 釜山鎮이 있고, 西京에는 斧山院이 있다. 임진년 왜적이 서경을 차지했을 때, 皇朝의 遊擊將軍 沈惟敬이 몸소 왜적의 군진으로 들어가 ‘백일 내로 天兵이 나와 전쟁을 마무리 할 것이니, 그 기간에는 병사를 거두어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받았다. 그리하여 부산 원 앞에 木牌를 세우고 한 걸음이라도 함부로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적 또한 그 명에 따라 망동하지 않았다. 李仰城이 출병하여 적을 크게 부수게 되자, 왜적들이 떠벌이기를 “우리나라에 讖書가 있는데, 거기에 ‘釜山에서 출발하여 斧山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 감히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라 하였다. 대개 그들이 지친 군대로 진격하지 못했던 실수를 감추려했던 말이었다.⁶⁵⁾

왜적이 심유경의 임시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여송의 군대에게 패하여 물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심유경이 휴전을 제의한 기간은 50일로

61) 주석에는, 김돈중이 毅宗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화살 통에서 갑자기 화살이 튀어나가 의종 앞에 떨어져 왕이 놀라고 이를 문초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敦中嘗從幸, 所佩矢忽自躍出, 墮於輦傍, 窮問矢主, 死者極多, 而敦中不能自首.” 그런데 『고려사』에는 김돈중의 말이 화살 통을 건드려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려사』 권18, 의종 21년).

62) 시 원문의 雕題는 오랑캐의 풍속을 말함. 『禮記』王制에 ‘東夷는 斷髮文身이라 했고, 南蠻은 雕題交趾’라 하였다. 雕는 새긴다는 뜻이요, 題는 이마인데, 조제는 丹青으로 이마를 아로새기는 南蠻의 일족이다.

63) 『분서집』 권8, 1-276면.

64) 서인한, 『역대병요·동국전란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65) “嶺南有釜山鎮, 西京有斧山院, 壬辰, 倭賊之據西京, 皇朝遊擊將軍沈惟敬, 躬入倭陣, 約以百日內天兵當出決戰, 其間宜斂兵以待. 仍立木牌於斧山院前, 不許妄躐一步, 倭亦聽命惟恭, 及李仰城出兵破賊, 賊乃倡謂伊國有讖書, 言自釜山止斧山, 故遵行不敢違越云. 蓋諱其頓兵不進之失也.”

알려져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100일로 되어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패퇴하던 왜군이 자신들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讖書의 내용을 운운하는 부분도 여타 기록에서 찾기 힘들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박미는 평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취하면서 평양을 도입으로 삼았던 역대의 국가들을 언급하였고, 자신이 들은 패설을 적극적으로 창작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남겼다. 주석들만 따로 모으더라도 한 편의 훌륭한 野史가 될 만하다. 평소 패설을 즐겨 듣고 기록해 두기를 좋아했던 그의 학문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3) 平壤의 民間風俗에 대한 記錄

「서경감술」 제20수부터 제30수까지 총 11편의 시는 평양의 민간 풍속을 소재로 삼아 창작된 것이다. 평양부 관리들의 參禮 복식, 연회 상에 오르는 음식에서부터 處容舞와 蓮花隊의 춤추는 과정, 대동강에서의 뱃놀이, 초파일 연등행사와 단옷날의 그네뛰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의 모습, 한겨울 대동강에서의 썰매타기, 한여름 蜜蓴과 蓮葉酒로 갈증을 달래는 모습 등 다채로운 광경들이 담겨져 있어 평양의 풍속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23수이다.

작을 이뤄 춤추던 학이 연꽃을 쪼니
연꽃 속 아가씨가 일어나 춤을 추네.
새하얀 학 너울너울 춤추는 곳에서,
두 무리 악사들이 拍板⁶⁶⁾ 치며 노래하네.

舞鶴成雙各啄荷
荷中兒女起婆娑
仙禽玉質傲傲地
兩隊工師拍板歌⁶⁷⁾

서경에서는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창호지로 미리 만들어 둔 피지 않은 연꽃 두 송이를 잔치 자리 앞에다 갖다 놓는다. 또 두 사람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큰 깃털을 달아 학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 춤을 추며 각각 연꽃을 쪼든다. 연꽃 속에는 미리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숨겨 두었는데, 연꽃이 피자마자 아가씨들이 각자 일어서서 노래하고 춤추며 학과 마주보고 춤을 춘다. 세속에서는 이를 蓮花隊라고 한다.⁶⁸⁾

이 광경은, 唐樂의 일종으로 삼국시대부터 개별적으로 연희되던 ‘鶴舞’와 ‘蓮花臺舞’에 대한 설명이다. 이 춤은 고려 시대로 넘어와 팔관회와 연등회 등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되었으며, 조선에서는 處容舞와 함께 공연되어 이를 ‘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로 불렀다고 한다.⁶⁹⁾ 주석에서 밝힌 ‘蓮花隊’는 ‘蓮花臺’라고도 하며 연회의 후반부만을 따로 말하는 것이다. 연꽃을 만드는 재료에서부터 학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모습, 연꽃이 터지면서 아름다운 舞姬들이 등장하여 학으로 분장한 사람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주석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제29수의 시와 주석이다.

66) 매끄러운 木板의 한 끝을 끈으로 묶어 손에 잡고서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악기.

67) 『분서집』 권8, 1-281면.

68) “西京宴酣, 先以紙板作荷花未開者兩朶樣, 置諸筵前, 又以兩人蒙縞衣玄裳, 皆用大羽毛作鶴樣, 入舞各啄荷朶, 荷朶中預藏妙好女兒, 荷朶纔拆而女兒各起立歌舞, 與鶴對舞, 俗謂之蓮花隊.”

69) 한옥근, 「歌舞戲로서의 呈才에 대한 연구-「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제5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참조. 「서경감술」의 제22수는 處容舞에 관련된 것이다.

두 사람을 태우고 깊은 곳 건너가니
 술집의 기생도 함께 올랐어라
 뽕뽕 언 강 십리 길을 나는 듯 지나가니
 사람들이 즐겨 타며 '썰매'라 하구나.

闊受兩身高可憑
 當墟兒女亦同乘
 冰江十里如飛去
 贏得人間雪馬稱⁷⁰⁾

溟水에 얼음이 뽕뽕 얼면 썰매놀이를 한다. 두 사람이 마주앉게 만들어져 기생들도 함께 탔으니, 강을 건너기에 편리한 것일 뿐만이 아니었다.⁷¹⁾

한겨울 뽕뽕 얼어붙은 대동강에서 썰매는 타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썰매가 두 사람을 태울 만큼의 크기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썰매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07년 1월 6일자에, 1924년 신의주 압록강에서 썰매를 타는 여자 선교사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 사진에는 두 사람에서 많게는 네 사람이 넓은 썰매에 올라있고, 남자 한 사람이 썰매 뒷부분에 올라서서 긴 장대로 썰매를 밀고 있다. 이것이 시에서 묘사된 평양 대동강의 썰매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석 마지막 부분의 말처럼 기생을 태우고 남녀가 함께 썰매를 타는 모습이 박미의 눈에 외설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겨울철 운행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 문화를 이룬 평양 대동강에서의 썰매타기는 한겨울 평양의 모습을 정겹게 전해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시가 있다. 제24수로, 고려시대 사행 행렬을 전승하던 전별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려 건국 이후 행해졌던 총 사행 횟수는 1063회로 한 해 평균 2.23회인데 비해, 명나라가 건국된 1368년부터 고려의 마지막 해인 1392년까지의 사행횟수는 총 194회로 한해 평균 8차례의 사행을 떠났을 만큼 고려 말의 사행 횟수가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⁷²⁾ 그런데 고려 말의 사행로는 대부분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元·明 교체기라는 중대한 시점에, 명나라는 조선과 원의 결탁을 우려하여 고려 사절단의 遼東출입을 금지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책을 강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⁷³⁾ 어쨌든 고려시대의 사행 행렬이 평양에 머물다가 떠날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고 그 풍습이 평양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회에서 일제히 挽舟辭를 부르니,
 둘러앉은 사람들 눈에 눈물이 글썽.
 朝京 행렬 예전에는 바다로 나갔는데,
 떠나기 앞서 이 노래 불렀다 하네.

當筵齊唱挽舟辭
 四座相看淚欲垂
 傳道朝京曾泛海
 每將此曲奏臨岐⁷⁴⁾

西京에서는 연회가 끝날 무렵 미리 작고 아름다운 배를 준비했다. 크기는 작은 斛 정도 되었고, 비단실로 묶어 놓았다. 기생들이 좌우로 나뉘어 배를 끌며 일제히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랫가락은 참으로 처량하였다. 고려에서 朝京하는 것은 으레 바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餞別歌였다고 한다.⁷⁵⁾

70) 『분서집』 권8, 1-283면.

71) “溟水氷合盛，作雪馬之遊，其制兩人對坐，當墟之女，亦同登，不徒爲利涉用也。”

72) 엄경흠,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181면.

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94, 364~368면 참조.

74) 『분서집』 권8, 1-281면.

75) “西京筵垂闋，預具小彩舟，如小斛許，以彩絲繫之。妓分左右挽舟齊唱辭，其語意雖不可解，而聲絕淒楚，蓋勝國朝京例泛海，此爲祖筵之曲云。”

주석에서 드러나 듯, 사행 행렬을 전송하는 연회에서 미리 작은 모형선을 만들어 놓고 기생들이 이 배를 끌며 ‘挽舟辭’를 불렀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박미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기록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는 또다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명·청 교체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나라가 요동을 차지하자 조선에서 명나라로 사행을 떠나는 것은 해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게다가 박미가 청으로 사행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637년, 金堉이 명나라의 사행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조선과 명의 交聘은 종막을 고향이 된다.⁷⁶⁾ 박미에게 해로 사행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일이었던 것이다. 전별연에 둘러 앉아 만주사를 듣는 사람들의 글썽이는 눈물은, 험한 사행 길을 전별하는 기생들의 구슬픈 노래 가락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해로 사행마저 완전히 단절된 시점에 청나라로 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朝鮮과 박미 자신의 서글픈 눈물로도 보인다.⁷⁷⁾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박미의 「서경감술」에는 평양의 다양한 연회와 풍속 등이 상세한 주석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썰매 타기를 묘사한 시에서는 평양 백성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들도 함께 느낄 수 있다.

4. 「서경감술」의 창작동기

1) 역사기록에 대한 관심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경감술」에는 평양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일화, 풍속 등이 자세한 주석과 함께 서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역사적 古都인 평양에서 느꼈던 감흥이 일차적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와 ‘역사기록’에 대한 박미의 남다른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박미의 역사기록에 대한 관심은 부친 박동량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에, 박동량의 역사의식을 간략히 살핀 뒤 박미의 역사의식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박동량은 조선 초의 野史와 임진왜란 전후의 사건을 기록한 『寄齋雜記』⁷⁸⁾를 저술하였다. 이 책의 史料的 가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박동량은 분명 前代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적극적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기재잡기』에 수록된 여러 가지 記事들은 조선 초기

76) 이 점에 대해서는 林榮澤,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韓國實學研究』 9, 韓國實學學會, 2005 참조.

77) 박미는 李顯英(1573~1642)이 1619년 海路를 통해 北京에 사신 가는 것을 전승한 「送李侍郎顯英兄泛海朝京師序」에서 해로 사행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마지막 부분에서 濟南은 太公의 옛 봉토이자 ‘李攀龍의 집’이 있는 문명의 땅이라 할 만큼 해로 사행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분서집』 권9, 1-324면. “盡海之大觀, 舍舟走陸, 爲齊太公之故封. 毋論泱泱乎大風, 濟南海岱一都會也, 作者李于鱗之宅在焉. 文明之域, 適當陝區, 菁菁者莪, 宜其代興. 以余管窺之不逮, 願有質也.”

78) 『大東野乘』에는 『寄齋雜記』와 『寄齋史草』로 구분되어 있다. 『기재잡기』는 「歷朝舊聞」이라 하여 조선 초기부터 明宗 대에 이르는 역대의 野史를 기록하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였다. 『기재사초』는 상·하 두 부분이다. 상권은 「辛卯史草」와 「壬辰史草」로서, 남아 있는 史草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 하권은 「壬辰錄」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19면 참조). 『기재잡기』에 대해서는 李康沃, 「기재잡기 연구-일화의 원천과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91, 震檀學會, 2001 참조.

문단에서 발달하였던 筆記·稗說의 전통, 특히 野乘을 통해 정사를 보충하려했던 전통⁷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기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박동량의 의식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동량은 1603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데, 原州에서 高麗 때의 隱士였던 耘谷 元天錫(1330~?)의 후손을 만나 집안에 감추어둔 채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그의 시집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작품들을 뽑아 한 질로 묶어 「詩史」라 이름하고 쓴 발문의 일부이다.

저들 역사(『고려사』-인용자)를 편찬했던 사람들은 王氏의 녹을 먹은 자들로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치지도 못했거니와 나아가 禡王 부자를 辛旽의 자식이라 뒤집어 씌웠다. 이것도 모자라 ‘恭愍王은 병풍 뒤에서 洪倫이 저지르는 불륜을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해 두기까지 하여, 지금 이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더럽게 여겨 침을 뱉는다. 하지만 우왕의 일만 보더라도 그것이 무함임을 잘 알 수 있다. 공(원천석-인용자)의 한 마디 말이 아니었다면 천년 후에 반드시 그 잘못을 답습해마지 않았을 것이니,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⁸⁰⁾

고려 말 禡王과 昌王을 辛旽의 자식이라고 기록한 『高麗史』의 서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원천석이 모함으로 얼룩진 당시의 시대상황을 詩로써 고발하지 않았더라면⁸¹⁾, 지금까지도 조선의 사람들은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으로 착각하여 역사를 왜곡해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역사’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여 원천석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박동량의 발언은 역사 기록을 맡은 사람이란 반드시 진실만을 후세에 전해야 마땅하다는 강한 역사서술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잘못된 역사서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 正史 이외의 ‘歷史記錄’을 중요시하는 태도까지 엿볼 수 있다.

張維는 『谿谷漫筆』에서 “우리 동방에 大儒 두 분이 계시는데, 모두 斯文에 큰 명망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께 큰 의문점이 있다. 圃隱은 죽음으로써 순국할 수 있었는데, 禡王과 昌王이 폐위되어 죽음을 당할 때에 節義를 세우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九功臣의 반열에까지 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⁸²⁾라고 말하였다. 정몽주가 우왕·창왕의 죽음에 신하로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 공신의 반열에까지 오른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大義의 관점에서 포은의 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박동량은 위에 소개한 글 전반부에서 장유에게 비판받은 圃隱의 행동에 대해, ‘王氏의 제사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⁸³⁾이라고 두둔하였다. 이 말의 관점을 풀어보자면, 前代의 역사를 평가

79) 林榮澤,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 批評社, 1984, 414~418면 참조.

80) 朴東亮, 『鳳洲遺稿』 권5, 「詩史跋」(『韓國歷代文集叢書』 282, 155면) “...彼脩史輩, 亦嘗食王氏之祿者. 既不能一死, 又以禡父子冒之辛, 此猶不足, 至書恭愍從屏後觀洪倫褻行事, 至今觀者莫不醜唾. 據禡一事, 足知其誣, 微公一言, 千百載下, 必將襲謬不已. 可謂東國有史乎!...” 『耘谷行錄』(『文叢』 6, 123면)에는 「詩史序」로 되어 있다. 朴世采는 박동량의 형인 朴東說의 『鳳村集』을 엮으면서 박동량의 문집인 『鳳洲遺稿』를 합철하였으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총 5권으로 1·2권은 『봉촌집』이며, 3~5권이 『봉주유고』이다. 박미가 부친의 글을 수습하여 『拾遺錄』을 간행했다는 기록으로 보아(『분서집』 권16, 「拾遺錄跋」) 이것을 박세채가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에 박동량의 저작으로 『梧窓集』이 있는데, 『기재잡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81) 원천석의 시에 대해서는 李佑成, 「高麗李朝의 易姓革命과 元天錫」(『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3) 참조.

82) 『谿谷漫筆』 권2, 「圃隱佔畢齋皆有重名於斯文而皆有大可疑處」(『문충』 92, 598면) “我東有二大儒, 皆有重名於斯文, 而皆有大可疑處. 圃隱能以死殉國, 而禡昌之廢戮, 不能有所樹立, 至列於九功臣, 此一可疑也.”

83) 박동량, 앞의 글, 154면. “嗚呼, 方禡之嗣王位也, 數三元老如崔都統牧隱圃隱諸公猶在也. 不惟當時上下無異議, 牧隱首曰: ‘當立前王之子.’ 及昌之廢也, 始曰: ‘禡父子乃旽之子孫.’ 蓋不如是, 則昌無可廢之道, 特爲此以籍之耳.”

할 때 大義에만 매몰되지 말고,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편적이거나 박동량이 지닌 역사평가의 원칙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박미의 역사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胡明仲史論辨」으로, 宋나라 胡寅이 지은 『讀史管見』⁸⁴⁾을 읽고 비판을 가한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역사를 논평하는 사람들의 병폐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다. 그들은 前人들의 잘못만을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는데 힘을 쏟아 자기 마음대로 비방을 일삼으면서도, 그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時措]였는지의 여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만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胡康侯와 그의 장남 胡明仲은 모두 역사를 논한 책을 지었는데, 그들이 논한 의리는 지극히 정밀하여, 이른바 ‘華袞斧鉞’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습관을 답습하여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생각하는 점에 문제가 있으니 안타깝다. 내가 우연히 호명중의 史論 가운데 적절치 못한 것 네 가지 점을 기록해 두었다. 만약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하나씩 들추어내자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⁸⁵⁾

박미는 후대 史家들의 역사 평가에 대해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다. 그것은 史家들이 ‘義理’라는 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전대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만을 들추어 호되게 비판한다는 것이었다.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인 胡安國과 그의 아들 胡寅에 대해서도 ‘義理’에 입각한 그들의 역사 평가를 ‘華袞斧鉞’⁸⁶⁾이라 극찬하면서도, 역대 史家들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박미 자신은 역사 평가의 중요한 원칙으로 ‘時措’를 내세웠다. 전대 인물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 반드시 어느 하나의 원칙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 정황을 고려한 뒤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박동량이 圃隱의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던 점과 같은 맥락으로, 박미는 이를 ‘時措’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던 것이다.

박미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평가원칙과 함께 역사 기록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역사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은 李厚源(1598~1660)의 금석록에 써 준 발문의 일부이다.

한가하게 지낼 때 稗說 몇 가지를 대략 글로 적어 두었는데, 거기에 ‘金石錄은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모를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만 옛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⁸⁷⁾

不然, 王氏之祀, 已絕於恭愍之後, 而以數公精忠大節, 竭誠盡瘁, 死而後已者, 果爲誰乎. 況朝廷綱紀不甚潰裂, 而軍國大政, 一委之數公, 則廢僞君存國姓, 必不出他人之後, 其所進退取舍, 講于中者固已審矣.”

84) 총 30권으로 司馬光의 『資治通鑑』이 사실은 두루 갖추어져 있으나 議論을 세운 것이 實이 적다고 하여 『春秋』 大義에 입각하여 자세히 논평한 史評集. 王應麟·朱直 등에게 의론이 너무 각박하다는 평을 받았다. (『四庫全書總目提要』 권84, 史部 史評類存目)

85) 『분서집』 권14, 「胡明仲史論辨」, 2-129면. “余嘗病論史者務操切前人之虧, 恣爲齟齬之, 不思時措便否, 唯大言誇詡而止也. 胡康侯暨其督明仲, 俱有所論議, 其談義理至析也. 所謂華袞斧鉞, 其筆尚恨猶蹈大言之習, 爽於時措也. 余偶記明仲之論舛宜者, 得其四, 蓋余之臆記者如此. 若循成籍而毛舉之, 則宜不止是.”

86) 『춘추』의 역사기록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지극히 엄정하고 훌륭한 褒貶을 말한다. 范寧, 「春秋穀梁傳序」. “一字之褒, 榮於華袞, 一字之貶, 嚴於斧鉞.”

87) 『분서집』 권16, 「題李士深金石錄後」, 2-215면. “閑中略草稗說數款, 而備言金石之錄訂定史誤爲不少, 不知, 此今人之所甚忽, 而古人之所甚重也.”

박미는 금석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들은 금석록의 가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모른다고 염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稗說과 관련된 언급이다. 稗說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후 문맥상 역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궁궐에 보관된 서적을 열람할 기회가 없었기에 패설을 즐겨보았고, 선생이나 어른들로부터 들은 옛 이야기를 자신이 읽은 패설과 서로 맞추어 보고 수정하였던 그의 노력⁸⁸⁾에서 패설의 애호가 취미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박미가 패설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던 점 역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기록을 중시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패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서경감술」은 박미의 이러한 의식이 작품 창작에 실천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확인했던 바대로 박미는 평양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아울러 자신이 견문한 패설들을 시와 주석을 통해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기록을 중시한 의식이 패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 민간 풍속까지 작품 속에 용해시켜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⁸⁹⁾ 그런데 그것이 ‘평양’이었다는 점은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2) 가문과 국가의 몰락에 대한 悔恨

박미는 「서경감술」 並序에서 평양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선대부께서 서경을 안찰하셨던 때를 기억하건대, 萬曆 乙巳年(1605) 9월에 처음 감영에 부임하셨고, 丁未年(1607) 9월 임기를 마치고 체직되었으니, 햇수로 3년이였다. 내가 선대부를 찾아본 것은 모두 세 번으로, 서경에 머물렀던 날을 헤아려보니 거의 삼백일을 넘었었다. 그래서 평양의 古蹟과 훌륭한 경치에 대해 두루 돌아보아 모르는 곳이 없었다. 나는 매달려 있는 조롱박처럼 쓸모없는 몸이었다가, 瀋陽에 가야할 일이 생겨 戊寅年(1638) 9월 26일 평양에 들어왔다. 손꼽아 헤아보니 그 사이에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⁹⁰⁾

박미의 부친 박동량은 1605년부터 1607년까지 햇수로 3년에 걸쳐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다. 박미는 이 기간 동안 평양으로 부친을 방문한 것이 세 번이었으며, 또 총 머문 기간은 300일을 넘었다고 하였다. 사실 박동량이 평양에 있는 기간이 만 2년이기 때문에 박미는 부친 임기의 반을 평양에서 같이 보낸 셈이다. 또 1606년 박미는 서울에 있으면서 이상한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맞았고, 宣祖의 배려로 박동량은 박미의 병을 살피기 위해 서울로 잠시 돌아오기도 했었다.⁹¹⁾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평양을 32년 만에

88) 『분서집』 권16, 「獨菴遺稿跋」, 2-205면. “不佞不幸早辱爲僇人, 無與於蘭臺石室之觀, 竊好窺覽稗說, 而間從諸先生家長老後, 輒樂告以舊所聞者, 則與諸稗說相讐訂, 頗有本末, 一二之概, 若不倍於古人掌故家言.”

89) 「서경감술」 외에도 「保寧永保亭」(『분서집』 권2, 1-63면), 「邀月堂次韻」(『분서집』 권2, 1-70면), 「和崎翁南征錄並序」(『분서집』 권2, 1-76면) 등 지방의 풍속 또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소재를 시로 적을 경우 반드시 주석을 달아 놓았다. 또 「丙子亂後集舊藏屏障記」(『분서집』 권11, 2-18면)에서도 ‘記’라는 문체의 특성에 부합하여 작품을 얻게 된 경위를 소개하는 한편, 작가와 작품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점은 역사기록을 중시하는 그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0) 『분서집』 권8, 1-270면. “記先大夫案節西京, 以萬曆乙巳九月初到營, 丁未九月, 任滿而遞, 首尾三載. 不佞歸省者凡三遭, 計其留西京之日, 則始過三百日. 西京之古蹟勝賞, 蓋無不歷探而備譜焉. 不佞瓠繫之身, 乃有赴瀋之役, 用戊寅九月廿六日入西京, 僂指其間三十二易寒暑矣.”

91) 『분서집』 권12, 「亡妹貞夫人朴氏墓誌銘」, 2-68면. “丙午冬, 余在京, 得奇疾且殊, 宣廟急宣府君來視. 先妣以長

다시 찾은 박미에게, 그곳은 남다른 감회를 생성시키기에 충분한 장소였다. 1635년 박동량이 사망했으므로, 박미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 시점은 부친이 돌아가신지 만 3년째 되던 해였다. 겨우 탈상을 하고 사행 길에 올라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던 그가 부친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평양의 역사와 풍속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서경감술」의 창작이 단순한 추억과 그리움의 반추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선대부께서 西京을 안찰하실 때, 大母께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로 在世해 계셨다. 당시 先仲父(朴東說-인용자)께서는 黃州牧使를 지내셨고, 재종형(朴燁-인용자)께서는 少尹이었으며, 선숙부(朴東望-인용자)께서는 桂陽府使를 지내셨는데, 번갈아 서경으로 찾아와 祝壽를 올렸고, 여러 사촌 형제들이 슬하에 나란히 늘어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 일은 서경에서 비록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가문의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⁹²⁾

「서경감술」에 붙인 서문의 마지막 대목이다. 박미는 박동량이 평양에서 관찰사로 있을 당시 조모께서 八旬을 바라보는 나이로 평양에 계셨던 일을 회고하였다. 그리고 조모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 黃州牧使를 지내고 있었던 仲父 朴東說, 從兄인 少尹 朴燁, 富平府使를 지냈던 叔父 朴東望⁹³⁾ 등이 평양으로 찾아왔던 일을 언급하였다.⁹⁴⁾ 신희은 평안도 관찰사로 떠나는 박동량을 전송하면서, “효도와 충성이 이번 행차에 다 있어라, 어머니 은혜와 임금 사랑에 몸은 가볍네. 세상의 복록이 그대 집에 모여드니, 만석군이 어떤이길래 헛된 명성 얻었는가?”라 노래하였고, 그 주석에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박미 집안의 일을 부러워한다고 하였다.⁹⁵⁾ 평양에서 있었던 박미 가문의 성대한 모임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박미에게 결코 잊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평양에서의 일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박미의 생애와 관련하여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박미의 가계를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박미의 고조는 朴兆年(1459~1500)이고, 증조는 司諫院 司諫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朴紹(1493~1534)이다. 박소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고 손자는 17명이다. 반남박씨 가에서는 이 자손들의 항렬자를 따서 ‘5應 17東’이라 부르고, 이들이 살았던 시기를 반남박씨의 중흥기로 평가한다.⁹⁶⁾ 박소의 아들인 應川(1516~1581)은 王子師傅를 지냈고, 應順(1526~1580)은 宣祖의 元妃인 懿仁王后의 부친으로 潘城府院君에 봉해졌다. 應男(1527~1572)은 호조참판에 도승지를 지냈고, 應福(1530~1598)은 호조참판과 병조참판을 거쳐 사헌부 대사헌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潘川府院君에 봉해졌다. 應寅(1532~1606)은 敦寧府 都正을 지냈다. 박미가 貞安翁主와 혼인하여 선조의 부마가 되므로 2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셈이다. 박응복의 아들

姊前物, 而不肖將繼之也, 便欲自決. 夫人侍側, 獨身任之, 蓋數月如一日.”

92) 『분서집』 권8, 1-271~272면. “若其先大夫按節之時, 而大母八旬在堂, 先仲父牧黃州, 再從兄爲少尹, 先叔父以桂陽知府, 後先稱壽, 而群從子弟駢列膝下者, 茲雖西京所罕觀, 而以其爲一家之私, 不敢載焉.”

93) 『분서집』 권13, 「叔父吉州牧使朴公行狀」, 2-104면. “甲辰, 陞授富平府使, 尋亦自劾去.”

94) 그때의 일은 申欽이 지은 「大司憲朴公夫人林氏合葬墓誌銘并序」(『象村續稿』 권24, 『문충』 72, 45면)에 잘 나타나 있다. “及公卒而夫人在世, 二男連典大州, 迭奉雕軒, 盡其榮養. 其季益貴, 重策勳封錦溪君, 爲養爲平安觀察使. 其仲方牧黃州, 地距三飡, 夫人來往有煒, 備極志物之享. 舉世艷稱其福祿, 而顧夫人常兢兢戒其已康.”

95) 申欽, 『象村稿』 권19, 「送朴子龍按關西四首」(『문충』 71, 485면)의 두 번째 수이다. “爲孝爲忠在此行, 母恩君寵覺身輕, 世間福祿公家聚, 萬石何人浪得名.” 주석에는 “觀察之凡東說氏牧黃州, 姪燁爲箕京少, 大夫人年七十五歲, 觀察年三十七, 自戶部尙書爲養出按, 時人榮之.”라는 내용이 있다.

96) 반남박씨 홈페이지 <http://www.bannampark.org/> 참조.

이 박미의 부친인 박동량이다.

박동량은 임진왜란 당시 병조좌랑으로 선조를 호종하였는데, 중국어에 능통해 선조가 중국 관리를 만날 일이 있을 때에는 꼭 대동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⁹⁷⁾ 1596년 이조 참판으로 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丁酉再亂 때는 황해도 遂安으로 왕비와 후궁 일행을 호위했으며, 1604년 扈聖功臣 2등으로 錦溪君에 책봉되고 호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위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1605년 평안도 관찰사의 임무를 맡았고 임기가 만료되던 1607년 다시 중앙 정계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이듬해인 1608년, 선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일생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 박동량은 永昌大君을 잘 부탁한다는 선조의 遺命을 받은 이른바 ‘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大北派에게 많은 견제를 받아, 결국 길고 긴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박동량의 유배생활은 박미의 생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친의 유배지에 늘 함께했으며, 인목대비 폐모론의 庭廳에 불참하였다가, 李廷龜·金瑬 등과 함께 十邪로 지목되어 작위를 삭탈 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동량의 평안도 관찰사 재임시절과 평양은, 박미에게 있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부친의 평안도 관찰사 재임시절은 박미의 생애를 통해 ‘과거의 영광’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당시 박미의 나이는 13세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을 32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 일개 가문의 행복했던 일들을 ‘감히’ 시로 남기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다시 찾은 평양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박미는 평양의 역사와 일화, 승경, 풍속 등을 시로 담아내려 했던 것이다.

심경호 교수는 한국 詠史詩 가운데 궁체시를 주목하고, 許筠의 「宮詞」와 朴珪壽의 「鳳韶餘響」을 “훼손되지 않은 과거”를 들추어내어 “훼손된 현재”를 비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허균의 「궁사」는 宮女들의 일상적 삶에 집중하기 보다는, 宣祖의 기거동작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것을 통해 광해군 시대의 亂政을 비판했으며, 박규수의 「봉소여향」은 과거의 昇平에 대한 묘사를 통해, 군신 관계가 어지러워진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였다는 것이다.⁹⁸⁾

이런 수법은 박미의 「서경감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박미의 삶에서 부친의 평양 재임 시절은 분명 “훼손되지 않은 과거”였던 것이다. 평양에 대한 기록을 시로 남기는 것은 기록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훼손되지 않았던 과거 자기 집안의 기억을 아로새기는 작업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박미의 생애와 관련지어 이 시를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박미의 좌절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서경감술」은 평양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으면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고구려의 도움으로서 평양을 부각시켰다. 고려에서 발생한 묘청의 난 역시 평양으로 도움을 옮기려 했던 일이었다. 도움으로서의 평양이 갖는 상징적 의미, 즉 새로운 기운의 발흥지라는 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관련된 평양의 기록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도움으로서 조선과 평양은 관련이 없기도 하려니와, 평양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가 처음으로 왜적을 격파했던 장소임을 주목한 것이다. 그래서 시와 주석을 통해 明軍의 역할을 칭송하고 ‘再造之恩’에 감사하였다.⁹⁹⁾ 하지만 그것은 李如松, 나아가 명나라

97) 金尙憲, 『淸陰集』 권24, 「錦溪君兼判義禁府事朴公神道碑銘并序」(『문충』 77, 325면) “公善華語, 前後接遇中朝官, 必在上前. 每被顧問, 進對詳雅, 華人無不目屬. 唯上亦以爲才.”

98) 심경호, 「韓國 漢詩와 歷史」, 『韓國漢詩研究』 1, 한국한시학회, 1993, 22면. 박규수의 「봉소여향」에 대해서는 김명호, 「朴珪壽의 宮詞 「鳳韶餘響」에 대하여」(『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 韓國漢文學會, 2003) 참조.

99) 제10수로 주석만 옮겨둔다. “皇明都督同知李如松, 號仰城, 卽太傅寧遠伯成梁之伯子, 仰城亦以討平寧夏功, 封

에 대한 감사의 의미보다는, 조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새로운 기운의 발흥지로서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박미 자신은 사신이 되어 길을 나섰지만, 그 대상은 명나라가 아닌 청나라였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어쨌든 ‘오랑캐’를 물리쳤다. 하지만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오랑캐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서경감술」에 표현된 평양은 민족의 발상지요, 수많은 승경을 간직한 명승지이며,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흥겨운 곳이자, 인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전혀 훼손되지 않은 건강한 평양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오랑캐 청나라로 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과 조선의 왜곡되고 굴절된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에서 회합했던 자기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을 ‘일개 가문의 개인적 일이라서 기록하지 못한다’라 한 것은, 평양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조선의 옛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염원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죽지사로서 평양의 역사적 사실과 풍속 등을 그려낸 「서경감술」의 자료적 가치와 내용, 그리고 창작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漢詩史 상의 큰 전환이라 할 ‘朝鮮風’ ‘朝鮮詩’의 자각, 즉 자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토속적 정경을 작품화한 양식으로 죽지사는 일찍부터 주목받았다.¹⁰⁰⁾ 죽지사의 창작 전통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18세기 이후가 되어야 그 본래의 民歌的 정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토속적 성격을 강화하게 된 것이었다.¹⁰¹⁾

그러나 조선 후기 한시의 토속적 성격은 盛唐風을 추구하며 古詩와 古樂府의 창작을 중시하기 시작했던 17세기 초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¹⁰²⁾ 이것은 ‘詩必盛唐’ 이론의 도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전후칠자들은 악부시 창작을 통해 민간적 정서를 작품에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¹⁰³⁾ 이러한 영향이 조선 문인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미가 전후칠자 문학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서경감술」 역시 당풍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단의 풍조를 모의한 것이기에 평가절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적·토속적 정서에 기반한 조선 후기 한시의 특징적 면모를 미리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金尙憲, 『淸陰集』, 『韓國文集叢刊』 77, 民族文化推進會.

朴 瀾, 『汾西集』, 『韓國歷代文集叢書』 2471~2472, 景仁文化社, 1997.

寧夏伯, 其父子功業可埒漢之絳條二侯. 兵部尙書石星, 字拱辰, 號東明, 壬辰倭難, 獨主用兵之議, 遂以仰城爲大將, 大破平壤之賊, 獲成再造之功, 我國皆爲寫眞立祠城中.”

100) 이동환,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韓國漢文學研究』 제3집, 韓國漢文學會, 1978.

101) 박혜숙, 앞의 책, 60~62면.

102) 張裕昇, 앞의 학위논문, 79~80면.

103) 黃卓越, 『明中后期文學思想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5, 제2장 참조.

- 朴東亮, 『鳳洲遺稿』, 『韓國歷代文集叢書』 282, 景仁文化社, 1990.
- 張 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民族文化推進會.
- 韓百謙, 『久菴遺稿』, 『韓國文集叢刊』 59, 民族文化推進會.
- 金明淳, 「朝鮮前期 紀俗詩 研究」, 『大東漢文學』 제21집, 大東漢文學會, 2003.
- 金垠廷, 「「五子詩」 창작배경 및 和答詩 연구」, 『震檀學報』 96, 震檀學會, 2003.
- 박혜숙, 『形成期の 韓國樂府詩 研究』, 한길사, 1991.
- 서인한, 『역대병요·동국전란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신하윤,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中語中文學』 제36집, 韓國中語中文學會, 2005.
- 심경호, 「韓國 漢詩와 歷史」, 『韓國漢詩研究』 1, 한국한시학회, 1993, 22면.
- 엄경흠,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 원유한, 「韓百謙의 『東國地理志』 成立背景」, 『실학사상연구』 13, 무악실학학회, 1999.
- 윤희면, 「韓百謙의 學問과 《東國地理誌》 著述動機」, 『震檀學報』 63, 1987.
- 이동환,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韓國漢文學研究』 제3집, 韓國漢文學會, 1978.
- 이성민, 「汾西 朴瀾의 삶과 文學的 志向」, 『漢文學報』 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 李佑成, 「高麗·李朝의 易姓革命과 元天錫」,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3.
- 林熒澤,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 批評社, 1984.
- 林熒澤,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韓國實學研究』 9, 韓國實學學會, 2005.
- 張裕昇, 「17세기 古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2002.
- 張裕昇, 「水色 許禎의 擬古的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 張孝鉉, 「朝鮮 後期 竹枝詞 研究」, 『韓國學報』 34, 일지사, 1984.
- 한옥근, 「歌舞戲로서의 朶才에 대한 연구-「鶴 蓮花臺 處容舞 合設」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제5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黃渭周, 「16·17世紀 樂府詩의 出現動因과 展開過程」, 『韓國漢文學研究』 제12집, 韓國漢文學會, 1989.
- 黃卓越, 『明中后期文學思想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5.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에 대한 질의서

김은정(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한문학 연구에서는 시대정신을 비롯한 거대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대를 살았던 당시 인물의 삶과 문학 세계를 통해 그러한 거대 담론을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발표자께서는 17세기 전반기의 秦漢古文派의 유파로서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朴瀾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미 연구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 발표 또한 그러한 연구선상에서 <西京感述>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조선 한문학사의 흐름을 이루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질의자로서 논문을 읽으며 의문이 났던 점을 몇가지 적어보기로 한다.

1. 竹枝詞의 문제

「서경감술」은 竹枝詞를 전범으로 삼은 것이라 하였고, 당시 문단의 풍조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竹枝詞는 朴瀾 시대보다는 그보다 앞서 유행하였던 양식이 아닌가 한다. 발표자께서 논거로 제시한 竹枝詞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6세기의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미가 실제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17세기 전반기임을 감안할 때 죽지사에게 대한 경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16세기의 작품들은 唐代 竹枝詞를 전범으로 삼되 그 내용이 모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미의 「서경감술」은 조선의 평양에 실재하는 역사와 풍속과 문물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기속악부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明代 문학의 영향이라고 하겠는데, 「서경감술」의 죽지사로서의 의의는 明代 문학과 관련성 및 조선후기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박미와 동시대 살았던 문인 작품 중에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 있다면, 조선적인 성격이 강조된 죽지사가 하나의 경향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을텐데 과연 그러한가 의문이 들기도 하다.

2. 역사 기록과 稗說의 문제

박미는 부친 박동량의 영향을 받아 역사 기록에 뜻을 두었고 역사에 대한 평가 또한 남다른 원칙을 고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역사 기록을 중시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稗說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역사기록’과 ‘패설’의 상보성을 인정하더라도, 「서경감술」 주석의 기록성은 ‘역사기록’의 일환으로서 보다는 민간풍속에 대한 관심과 稗說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하겠다. 실제로 「서경감술」 30수는 12수는 역사적인 사건, 7수는 평양의 승경, 11수는 민간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견문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은 것이 곧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또한 「서경감술」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문과 국가가 융성했던 시절을 회고하고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는 역사를 소재로 하는 시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가 한다.

3. 민간풍속의 기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서경감술」 30수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민간풍속을 소재로 삼은 11수의 시였다. 이는 기속악부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풍속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그 사료적 가치도 높다. 그런데 21수 <炙牛魚鯽>, 22수 <處容舞>, 23수 <鶴蓮花臺合設舞>, 24수 <船遊樂>은 평양에서 벌어지는 연회를 소재로 한 것인 듯하다.

특히 24수 <船遊樂>은 평양의 민요 <배따라기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무극을 묘사한 것이다. <선유락>이 <배따라기곡>을 소재로 하였다는 것은 朴趾源의 「漢北行程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유락>은 조선 후기에 궁정 연회의 공연 종목으로 채택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헌 가운데 궁정 연회에서 <선유락>을 공연한 최초의 기록은 정조 19년(1795) 정조의 화성 능행과 부대 행사를 기록한 『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따라서 「서경감술」의 <선유락>은 가장 앞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강조했으면 좋을 듯하다.

임진왜란과 義妓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박노자(오슬로대)

1.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 “여전사” (女戰士)에 대한 문학적인 서사는 특히 구비 문학이나 통속적 산문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다. 보통 남성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돼 있는 군사적인 폭력이라는 분야에 여성이 개입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비상한 일”인 만큼 늘 문학적인 주목을 받는다. 즉, 통상적으로 가부장적 사회들의 “남성적 영역”과 “여성적 영역”으로 각각 정해진 부문 사이의 “겹침”이 일상의 “정상적인 질서”를 전복하는 만큼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필요로 하는 문학의 호재 (好材)가 늘 되는 것이다. “남성못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보통 “아마존”에 의한 “정상적” 질서의 파괴에 대한 묘사가 그 “사건”의 “비정상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에 의한 폭력의 독점”의 “정상성”을 재확인하는 효과를 내긴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여성 호걸에 대한 시각의 근거에 그 “비상함”에 대한 은근한 혐오의 정서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서 1640년대의 영국 내전 때에 참전했거나 그 뒤에 여러 전쟁 때에 참전했던 여성들에 대한 18-19세기 영국 민요들의 시각은 그 “담력”에 대한 경외 (敬畏)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여전사”에 대한 영국 민요의 경우에는 또 상당수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즉, 19세기 이전의 영국에서는 여성이 군대에 지원하여 전시 근무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으며, 또 특히 하층 계급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상대로 해서 권투 시합을 하거나 결투를 하는 상황도 실제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미 짜여 있는 “여성성” 담론의 한계를 넘어 활동을 했던 여성들에 대한 동경 위주의 문학적 시각의 발전은, 이와 같은 여성의 가시적인 현실적인 존재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¹⁰⁴). 이슬람권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원칙상 여성의 참전이 “비정상”으로 취급됐지만 일부의 여성이 빈번히 참전하여 “용사” (勇士)로서의 명성을 얻기도 했다. 예컨대 선지자 모하메드 (570-632)의 초기의 여성 추종자 중의 한 명인 움 우마라 (Umm Umarah)가 여러 전투에서 많은 남성 적군을 살해한 것으로 유명했다¹⁰⁵).

104) Dianne Dugaw, *Warrior Women and Popular Balladry 1650-18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69-129.

105) Nabia Abbott, "Women and State in Early Islam", -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Vol. 1, No. 1, 1942, pp. 106-126.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여전사”의 이미지는 일본의 중세 문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12세기 후반의 “원평합전” (源平合戰: 1180-1185)을 다루는 <헤이게 모노가타리> (平家物語)의 여러 이본에서는, 결국 승자가 된 미나모토 (源氏) 가문의 불운한 주인공 중의 하나인 미나모토 요시나카 (源義仲: 1154-1184)의 첩이었던 도모에 고젠 (巴御前)의 전공 (戰功)에 대한 기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재미있게도, 도모에 고젠이 경국지색의 미인과 승마, 검술, 무술을 두루 남성 이상으로 구사한 “전사”로 동시에 묘사돼 “여성성”에 대한 그 당시 일본 사회 이해의 양면성, “여성성”의 경계선의 애매함을 보여준다¹⁰⁶). 중국의 경우에도, 나중에 전설화된 7세기의 효녀이자 뛰어난 “여전사”인 화목란 (花木蘭)부터 19세기의 태평천국의 여성 부대와 의화단 봉기 때의 “홍등 (紅燈) 부대”까지, “전통적 가치”들을 확립하면서도 그 가치의 한계를 초월하려 하는 여성의 “무사화” (武士化)의 사례와 관련 담론들을 꽤나 많이 접할 수 있다¹⁰⁷).

위에서 본 것처럼 여성의 간헐적인 참전과 이에 대한 영웅서사, 이와 같은 “아마존 전승”에 의한 고정화된 젠더(gender) 담론의 부분적 문제화 내지 전복은 세계사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며,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기원후 40-43년의 반(反)중국 반란의 주도자인 쑹 (徵) 자매 (徵側와 徵貳)를 “민족 영웅”으로 기리는 베트남 등에서도 “여걸의 전승”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설령 고대에 여성들의 전투 참여의 경우가 있었다 해도 유교적인 사학에서 기록됐을 리는 없고 “여전사” 관련 문학 자료도 역시 유교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서구나 중동은 물론 같은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성리학의 지배력이 조선만큼 강하지 않았던 중국, 일본, 베트남에 비해서도 매우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임진왜란과 호란 (胡亂), 이괄의 난 (1624) 등으로 조선 사회가 몽골 침입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혼란에 빠지자 “국난 극복의 영웅”으로서의 여성들에 대한 서술들이 출현되어 기존의 성리학적인 성(性)역할 분담 의식에 일정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균열”은 성리학적인 가치의 ‘전복’이라기보다는 그 가치들에 대한 “조절, 수정과 궁극적인 재확인”에 가까웠다. 예컨대 <병자임진록 > (丙子壬辰錄)에서 일타홍 (一朵紅)이라는 이름의 효녀가 중국의 화목란 고사대로 처음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괄의 모병에 응하여 군문에 투신했다가는 나중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눈치 채어 관군의 정충신 (鄭忠信) 장군의 막하에 책사로 활약하면서 승리에 결정적인 공로를 그 지략으로 한다. 그런데, 일타홍의 활약이 남장(男裝)여인이라는 이유로 가능했으며 정충신이 그가 여자임을 알자 결국 둘이 결혼하여 일타홍이 유교적인 여성관에 맞는 “아내”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성 군담”으로서 가장 유명한 <박씨부인전>에서도 이시백 (李時白)의 첩인 박씨부인이 같은 여성인 호국 (胡國)의 왕비 (王妃)의 흉악한 계략을 호풍환우 (呼風喚雨)의 도술로 물리치는 등 “아내/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본분”을 어느 정도 벗어난다 해도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남편에 대한 내조(內助)”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남성이 아닌 같은 여성인 왕비와의 (완력이 아닌) 도술의 대결을 중점적으로 한다¹⁰⁸). 즉, 군담 소설에서마저도 여성영웅이란 적병을 전장에서 직접 살해하는 “여성 군

106) Steven T. Brown, "From Woman Warrior to Peripatetic Entertainer: The Multiple Histories of Tomoe", -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8, No. 1, 1998, pp. 183-199.

107) Ono Kazuko, *Chinese Women in a Century of Revolution, 1850-1950*,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21, 49-53.

108) 張德順, “丙子胡亂을 前後한 戰爭小說”, -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人文科學>, 제3집, 1959, 1-16쪽.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현상”, - <여성문학연구>, 제10집, 2003, 138-157쪽.

인”이라기보다는 열의 (烈義)와 효심, 지략과 도술이 뛰어난 “전쟁 상황에 내던져진 열녀”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다.

2. 여성에 의한 적병 살해의 기억으로서는 조선의 경우에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의기 (義妓) 전승,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 그 당시의 논개 (論介) 전승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논개”라면 “왜장을 죽였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어디까지나 “애국멸적” (愛國滅敵), 군사적인 애국주의에 가까운 내용이 논개에 대한 기억의 중심에 들어서게 됐다¹⁰⁹). 그러면서도 이 “애국멸적”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본령”이라고 간주되는 “자기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고, 또 여주인공이 손에 무기를 드는 일 없이 - 즉, 남성이 독점하는 군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일 없이 - 이루어졌기에 논개 관련 전승이 유교적인 가치 체계를 전복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근대적인 “애국주의”의 전신 격인 유교적인 “충군애국”의 이념에 잘 부합돼 있다. 논개에 대한 오늘날의 “민족 영웅”과 같은 시각에서의 해석은, 근대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18-19세기에 이루어진 논개 이미지의 각색, 미화 과정의 결과물이고, 그 각색, 미화 과정에 대해 뒤에 보다 상세히 밝히려 한다. 그런데 애국적인 각색이 아직 본격화되기 이전의 논개의 이미지, 즉 “논개 사건”을 기억했던 왜란 그 당시의 진주 사람들의 논개의 이해에 가장 가까운 논개의 “원래 이미지”는 과연 “나라를 위해 왜장을 죽인 남자 못지않은 영웅”의 그것이었을까?

임진왜란 그 당시의 논개 관련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논개 사건”의 역사적인 복원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사건 - 내지 그 사건과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 - 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던 17세기 초반의 논개의 “당대적 해석”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논개 관련 최고 (最古)의 자료이기도 한 유몽인 (1559~1623)의 <어우야담> (1621)이다. 유몽인이 1593년에 시장원 문학으로서 무군사 (撫軍司)의 일원이 되어 세자 광해군을 따라 진주로 내려간 일이 있었기에 논개 관련 그의 정보가 진주 주민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¹¹⁰):

論介者晉州官妓也當萬曆癸巳之際金千鎰倡義之師八據晉州以抗倭城陷軍敗人民俱死論介凝粧靚服立于矗石楼下峭巖之巔其下萬丈即入波心羣倭見而悅之皆莫敢近皆一倭挺然直進論介笑而迎之倭將誘而引之論介遂抱持其腰直投于潭俱死壬辰之亂官妓之遇倭不見辱而死者不可勝記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彼官妓皆濫娼也不可以貞烈稱而視死如不汗於賊渠亦聖化中一物不肯背國從賊死他忠已矣 (“人倫篇”, 孝烈)

이 내용에서는 유몽인이 진주 사람들로 부터 들은 것으로 이해되는 “논개 사건”의 상황 전개 의 논리와 유몽인 자신의 세계관이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논개의 행동의 논리 그 자체로 보자면 그녀가 도시가 함락되는 상황에서 부녀자 강탈을 자행하는 왜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한 듯했다.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축석루 아래 우뚝한 바위 위에 서 있었던 그녀를, 왜인들이 처음에는 “기쁘게” 보면서도 “이상한 여인”으로 여겨서인지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皆莫敢近皆). 그러다가 한 왜군이 논개 앞으로 나아가자 논개가 그 운명을 맞은 듯 웃으면서 그를 맞이했다. 그 한 왜인 장차 그녀를 유인하려 했는데 (倭將誘而引之 - “왜가 장차...”라는 의미의 “倭將”이 나중에 “왜인 장

109) 예컨대 “왜장 처단”을 논개의 “가장 큰 공로”로 내세운 글로서 정동주, “진주성 전투와 논개”, - <南冥學 研究>, 제7집, 1997, 71-102쪽.

110)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 <우리말글>, 제32집, 2004, 9쪽.

군”으로 오독돼 논개 사건 각색의 “근거”를 제공했다¹¹¹⁾), 그녀가 그를 안고 같이 투신함으로써 유몽인의 표현대로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不見辱而死) 것이었다. 결국 유몽인들이 이 이야기의 대강이 논개가 왜군의 겁탈을 면하려고 자신을 “더럽히려는” 왜인과 차라리 같이 죽기를 택했다는 “강간 시도에의 필사적 저항”의 논리이었는데, 유몽인이 이것을 유교적인 군주의 “성화” (聖化: 교화)를 입어 “참아 나라를 버리고 적을 따르지 못하는” (不肯背國從賊) 한 “세칭 음탕한 관기 (官妓)”의 가상한 충성심으로 해석했다. 무장한 남성의 공개적인 강간 시도에의 필사적 저항이란 유교적인 도덕론 중에서도 “충성심”보다 “여성으로서의 명예”, “정절” (貞烈)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지만, 유몽인이 “천한 관기가 정절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존심으로부터 발생됐음직한 행동을 “충성심”의 논리로만 읽었다. 이와 같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유교적인 교조주의, 즉 여성의 행동을 남성 주류 사회의 논리로만 읽으려는 자세는 “논개 사건”의 차후의 각색의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유몽인보다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오두인 (吳斗寅:1624-1689)의 <양곡집> (陽谷集: 1651)에 실려 있는 “의암기” (義巖記)도 “논개 사건”의 다소 현실적인 상황을 사실에 가까운 형태로 전해주는 듯하다:

時有官妓論介者誓不與賊俱生視死如歸凝粧靚服飄然特立乎此巖之上衆倭望見而悅之懼其危而莫敢近忽有一倭挺身直進將誘以出妓乃佯笑而迎之遂抱持其倭投江

즉,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느라고 얼굴과 옷을 예쁘고 단정하게 꾸민 관기 논개는, 왜인들이 접근하기 두려운 바위로 몸을 피했다가 한 왜인이 거기까지 쳐들어와 논개로 하여금 나오게끔 유인하려 하니 (여기에서도 “장수”가 아닌 “한 왜인”일뿐이다!) 그 침입자를 안고서 강간 희생자로서의 삶보다 잠재적 가해자와 함께 죽기를 택한 셈이다. 그녀의 행동을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존심의 발로로도, 무장한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저항심으로도, 심지어 유교적인 “정절”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충성심”의 논리이었다는 어떤 증거도 텍스트 자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8세기초에 진주 지역 유생들과 지방 관료들이 논개에 대한 국가적인 인정 (認定), 즉 사후의 봉작 (封爵)과 사당 (祠堂)의 건립을 조정에 요청했을 때에, “공인 (公認)의 영웅”이 돼야 할 논개의 행동과 그 동기에 대한 설명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1721년에 경상우병사 (慶尙右兵使) 최진한 (崔鎭漢)이 논개에 대한 포상을 비변사에 요청하자 비변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비답을 내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진한의 주도하에서 진주의 관민들이 합동으로 “의암사적비” (義巖史蹟碑)를 건립하여 그 인본을 비변사에 제출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중앙 관청에 제출하는 자료에서는 논개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돼 있었다 (“兩祠宇修改先報備邊司狀”, - <忠烈實錄>)¹¹²⁾ 그 당시에 비문 작성을 맡았던 진주 지방의 유명한 성리학자 정식 (鄭拭: 1683-1746)이 그의 “의암비기” (義巖碑記)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巖非斯女 烏得義聲

111) 한규무,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인간 연구>, 제9집, 2005, 66-68쪽.

112) 김수업, <논개>, 지식산업사, 2001, 27쪽.

바위는 이 여인이 아니면 어떻게 의롭다는 소리를 들으리?¹¹³⁾

즉, 진주 관아나 지역의 유학자 입장에서는, 논개의 행위가 오로지 삼강오륜의 도덕률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義)에서 발생했을 뿐이었다. 논개가 지역 영웅이 돼 가는 과정에서는, 그녀의 행위가 그 출발점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연발생적 자기 방어이었다는 것이 거의 망각되고, “충의 (忠義)의 여인”의 이미지가 든든하게 구축됐다. 1740년, 경상우병사 남덕하 (南德夏: 1688~1744)가 논개를 기리는 의기사 (義妓祠)를 논개가 투신했다는 의암 (義巖)의 부근에서 건립했던 그 당시에는, 박태무 (朴泰茂: 1677-1757)라는 그 당시 진주 지방의 남명계통의 성리학 권위자가 논개 유적을 방문하여 그의 “의기전” (義妓傳)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賊陷晉陽城城陷而無復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然徒死無益豈烏活瀆之諒哉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會長喜而來遂(...)與之舞舞將半抱賊投江而死 (...) 賊哭其師大亂粉潰城復全¹¹⁴⁾

강간범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여성이 여기에서 간데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나라 일”을 걱정하여 국가를 위해 죽을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적군의 “추장”을 죽임으로써 거의 진주를 다시 “수복”시키는 듯한 “큰 전공(戰功)”을 세운 여장 (女裝)의 유교적인 “의사” (義士)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논개의 상(像)이 유몽인의 기록보다 이미 상당히 각색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예컨대 유몽인의 논개가 가야금을 타지 않았다), 박태무를 비롯한 진주 지역의 유림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비록 여성이자 기생이었지만 왜장을 죽이는, 누구보다도 큰 공훈을 세웠다는 “고향 인물”을 “발굴” (사실상 “발명”)하여 선양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고사 내용의 정확성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의기사 (義妓祠)가 세워지고 논개에 대한 제사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뒤인 18세기 중반에 논개에 대한 신화화 (神話化: mythologisation)가 새로운 탄력을 받았다. 임진왜란 시절에 진주에서 큰 전훈 (戰勳)을 세우고 비장하게 순국한 의병장 최경회 (崔慶會: 1532-1593)라는 또 한 명의 “지역 영웅”과 논개의 “특별한 관계”가 “발견” (즉, “발명”)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즉, 권적 (權適: 1675-1755)이라는 그 당시의 원로대신이 최경회에게 시호 내리기를 청할 때에 “논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경회의 천첩이 적장을 피어 끌어안고 함께 떨어져 죽었다”고 썼는데, 최경회에게 1750년3월25일에 충의 (忠毅)라는 시호가 내리자¹¹⁵⁾ 그와의 “관계”는 “영웅”으로서의 논개의 “격”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이제 그녀가 단순히 일개의 관기가 아니고 비록 소실이긴 하지만 사대부 출신의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 되어 유명한 의병장과 함께 순국한 셈이 됐다. 그러기에 남도의 지역 사회에서 편찬되는 그 후의 기록에서는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1799-1800년에 호남 지방의 유림들이 간행한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을 보자:

妓論介長水人公所昞也隨入晉州及城陷盛其塗澤誘賊將二人對舞南江危巖上兩手挽二賊墜江而死後人鐫其巖曰義巖立碑 (제4권, “忠毅公崔日休堂事實”)¹¹⁶⁾.

113) 정식 지음, 허권수 옮김, <명암집> (明庵集), 와우출판사, 2003, 326-327쪽.

114) 박태무, <西溪先生文集>, 제3권, 경인문화사, 1996, 273-274쪽.

115) <조선왕조실록>, 영조26년3월25일.

이 자료에서 여태까지 그 가문도 고향도 가족관계도 전해지지 않고 이름만 알려질 뿐인 논개에게 최초로 구체적인 “고향”이 부여됐다. 아마도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지낸 적이 있었던 최경희의 경력에 착안해서 그가 “눈여겨봤다”(眇)던 논개가 바로 장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다. 재미있게도, 이 자료에서 논개의 “전과”(戰果)도 “한 명의 왜장”에서 “두 명의 적장”으로 다소 늘어나게 된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사회의 동요가 심해지고 외세의 간섭이 사회를 불안케 만든 19세기 후반에 논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심층적 신화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839년에 간행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서는 논개에 대한 최경희의 감정을 “눈여겨보는”(眇)의 차원이 아닌 “사랑”(愛)로 기록했으며, 논개가 축석루에서 계획적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왜장이 크게 취한 뒤에 그를 안고 같이 투신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論介大宴于矗石樓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同投樓下而死”). 또 최경희와 같이 순국한 “충국의 인물”로서의 논개의 명성이 커지고 굳어지는 대로 장수현(長水縣)에서는 그녀의 정확한 “주소”까지 찾아졌다. 즉, 1872년의 <호남읍지>에서 그녀가 모호하게 “장수현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현내면 풍천(任縣內面 楓川) 사람”으로 기록됐다¹¹⁷⁾. 결국 구한말에 논개에 대한 “풍천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는데, 1945년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내계면 대곡 주촌리”라고 구체화되어 논개는 드디어 정확한 “번지수”까지 갖게 됐다. “대곡 주촌리”라는 논개의 “생가 주소”는 맨 처음으로는 1954년에 진주에서 세워진 “의랑논개의 비”(義娘 論介의 碑)에서 나타났는데, 그 뒤에는 논개 관련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그대로 언급되어 세인들에게 기정사실로 알려지게 됐다¹¹⁸⁾.

논개의 “생가 주소 확인”과 함께 논개 신화(神話)의 구체화 과정은 논개의 “가계(家系) 확인”과 논개가 처단한 왜장에 대한 “신분 확인” 등으로 아울러 나타났다. 즉, 1954년에 장수에서 이재순이 “의암주논개영정각신축기”(義巖朱論介影幀閣新築記)를 작성하면서 논개에게 전라 지방에서 비교적 흔한 (1985년에 전국의 36869 가구 중에 전라도 거주는 7129 가구) 주씨(朱氏)라는 성씨와 본관(新安)을 준 뒤에 “주논개”라는 성명이 향토사학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고¹¹⁹⁾, 또 논개에 의해서 처단됐다는 왜장의 이름으로 그 유명한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1562-1611)나 이시무네(石宗老), 賀羅北 등으로 여러 가지로 언급됐다가 1908년에 출판된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자 효자, 많은 민속극들의 주인공인 게야무라 로쿠스케(毛容村六助: ?-?)로 “알려지게” 된 뒤에 대체로 “게야무라설(說)”이 “정설”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근세 민중 문학에서 게야무라가 조선 원정에 참전했다가 두만강 강변 근처에서 전사했다거나 일본에 귀환하여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¹²⁰⁾, 다소 전설성이 강한 그의 이미지가 식민지 말기 이후부터 “논개 신화”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결국 처음에 유몽인의 기록에서는 이름만이 남았던 논개는, 1950년대에 이르러 성씨와 남편, 고향, 그리고 그 전훈(戰勳)의 구

116) 高廷憲, “湖南節義錄”, -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 전라남도, 1990.

117) 장수문화원 편, <논개의 생애와 충절>, 대흥기획, 1997, 17쪽

118) 위의 책, 101쪽.

119) 예컨대 논개의 “출생지”에서 1960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랑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그리고 그 “불망비”를 근거로 한 수많은 문학 향토사 저술들과 문학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장수군(長水郡), <장수군지>(長水郡誌), 1990.

120) 최관, “일본 근세문학에 있어서 임진왜란과 毛容村六助”, - <일본어문학>, 제3집, 1997, 265-279쪽.

체적인 사항 (처단된 “왜장”의 이름)까지 모두 갖추어 명실상부한 “애국의 영웅”, “여대장부”로 거듭난 셈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논개의 원래 행적의 여성적인 논리, 즉 무장한 강간범으로부터의 자기 보호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미 18세기의 사대부들의 텍스트에서 “충국(忠國)의 인물”로 해석된 논개는, 20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의 가장 위대한 “애국 여성 영웅” 중의 하나가 됐다.

3. 그러면, 대체로 “아마존” 형(型)의 여성 영웅 이미지가 유럽이나 아랍권,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에 비해 훨씬 더 드물게, 그리고 훨씬 더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조선시대 말기에, “유명한 왜장을 죽인 순국 의사 (義士) 최경희의 소실 (小室)”로서의 논개 이미지의 꾸준한 신화화 (神話化)의 동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왜 하필이면 명암 정식 (鄭栻: 1683-1746)이나 서계 박태무 (朴泰茂: 1677-1757)와 같은 18세기 전반의 진주 지방의 유명한 유림부터 “의기 논개”를 1899년에 편찬된 <진주군읍지> (晉州郡邑誌)의 “인물편”에 넣은 구한말의 진주 지방의 유지 집단까지 “국가에 몸을 바친 여충신 (女忠臣)”으로서의 논개를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했던가? 여기에서 “논개 신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지역 사회들의 사회, 정치적인 당면 문제들에 착안하여 18-19세기 그 당시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논개 신화”의 실질적인 대(對)사회적 의미를 논해보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논개의 신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진주 지역의 경우에는, 17-18세기에 전결수 (田結數)가 거의 2배 이상 늘고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활발히 성장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의 경우에는 진주 지역에서 농업 경영의 기반이 되는 수리시설인 제언 (堤堰)과 보(洑)의 수는, 경상도 여타 지역의 평균에 비해 약 1.5배나 높았다. 그러기에 그 유명한 <택리지> (擇里志, 1751)에서 경상도의 진주와 전라도의 남원, 구례가 “국중최옥지토” (國中最玉之土)로 나란히 같이 일컬어지고 있었다 (“卜居總論”, 生利)¹²¹⁾. 이와 같은 튼튼한 물적 기반에 힘입어 비교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해온 것은 진주 지방의 양반 지주층이었는데, 1623년의 인조반정 (仁祖反正)이후에는 그들과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순탄치만 않았다. 조선조 초기에는 “영남의 인재 절반이 진주에 있다” (嶺南人才半在晉陽)는 말이 통할 정도로 진주 지역 사대부들의 중앙 진출이 활발했는데, 16세기중반과 후반에 선산, 안동과의 경쟁에 상대적으로 밀린데다 1623년 인조반정 때의 대북 (大北) 정권의 몰락 때에 대북과의 이념적인 지주(支柱)인 남명학의 본고장으로서 매우 심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이인좌 (李麟佐)의 난 (1728) 이후로는 조정에서 이 “역모”의 사상적인 뿌리를 남명학에서 찾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진주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 예컨대 1740년에 국왕 영조와 당대의 유명한 문신 이천보 (李天輔: 1698-1761)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

上御召對檢討官李天輔因文義言曹植學問門路不純正故其門下出鄭仁弘如荀卿之有李斯而植居右道故右道之人專尚氣李滉居左道故戊申之亂人無犯者至于今多有文學行誼者宜收用上可之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검토관 이천보(李天輔)가 글뜻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조식(曹植)의 학문은 문로(門路)가 순정(純正)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서 정인홍(鄭仁弘)이 나왔으니, 이는 순경(荀卿)의 문하에서 이사(李斯)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조식이 우도(右道)에 살았기 때문에, 우도 사람들은 오로지 기절(氣節)을 숭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황

121) 권내현. “18, 19세기 진주지방의 향촌세력변동과 임술농민항쟁”, -<한국사연구>, 제89집, 1995, 117-144 쪽.

(李滉)이 좌도(左道)에 살았기 때문에 무신년(9606)의 난(亂)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학(文學)과 행의(行誼)가 있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수용(收用)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¹²²⁾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참형돼 끝내 신원되지 않은 정인홍의 고향은 합천이었지만 그 스승 조식의 고향인 진주는 그의 “사상적 고향”으로 인식돼 심한 차별 받게 돼 있었다. 1796년에 이르러 조식에 대한 제사를 드디어 국가적으로 인정하고¹²³⁾, 또 영조, 정조시기에 진주를 포함한 영남 인재의 등용을 조정에서 논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주의 유림세력들이 본향에서의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위상과 판이하게 전국 정계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1740년의 의기사(義妓祠) 건립을 비롯한 진주의 의기(義妓) 논개에 대한 국가적인 인정(認定)은, 지역 유지들의 입장에서는 “逆鄉”이 아닌 “忠鄉”으로서의 진주의 위신을 나름대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이었다. 그런데, “忠鄉” 이미지 조성 차원의 “논개 신화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강간으로부터의 자기 보호가 “계획된 순국”으로 탈바꿈되고, 관기(官妓) 논개가 소실(小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명한 의병장 최경희의 “가족”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됐다.

그렇다면 18세기 중반부터 논개를 임진왜란 그 당시의 남도 지방의 수많은 남성 영웅 중에서는 하필이면 최경희라는 특정 인물과 연결시키곤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논개와 마찬가지로, 최경희가 1593년 진주 함락 때에 축석루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유몽인의 야승에서만 그 이름을 남긴 일개의 기생 논개와 달리, 최경희의 비장한 순국은 실록에까지 실려 있었다:

二十九日東門城因雨毀頽賊衆蟻附以上宗仁與親兵捨弓矢持刀槍搏戰格之賊死者堆積如丘賊乃退賊知西北門倡義使所守處兵弱乃聚大兵一力仰攻倡義軍不能支賊遂登城耀兵守陴軍散入於礮石樓禮元先走匿千鎰與慶會高從厚等列坐廳上曰此吾輩死所也使酌酒來持酒者已走命放火欲自燒賊卽登樓千鎰與其子象乾及慶會從厚梁山璠等北向再拜投江以死

29일 동문의 성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적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기어올랐다. 종인이 친병(親兵)과 더불어 활과 화살은 놓아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육박전을 벌여 죽인 적의 시체가 구릉(丘陵)처럼 쌓이니 적이 이에 물러갔다. 적이 창의사(倡義使)가 지키는 서쪽과 북쪽 성문은 병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군을 모아 힘을 다해 공격해 올가니, 창의군(倡義軍)이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였다. 적이 드디어 성에 올라와 병기를 휘두르니,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흩어져 축석루로 들어갔는데, 서예원은 먼저 달아나 숨어버렸다.

김천일이 최경희·고종후 등과 청당(聽堂)에 나란히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를 우리들이 죽을 장소로 합시다.”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술을 지니고 있던 자도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에 불을 지르도록 명하고는 스스로 타 죽으려 하였는데 적이 바로 축석루에 올라오자, 김천일이 그 아들 김상건(金象乾) 및 최경희·고종후·양산숙(梁山璠)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¹²⁴⁾

아마도 권적(權適: 1675-1755)이나 <호남절의록>의 편찬자들에게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

122) <조선왕조실록>, 英祖16년12월5일

123) <조선왕조실록>, 正祖20년8월13일

124) <조선왕조실록>, 宣祖(수정), 26년6월1일.

각에 이루어진 두 개의 “순국의거” (殉國義舉)를 하나의 서사로 합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관기 논개가 사대부 최경희의 정실부인이나 친척이 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천첩” (賤妾) 정도로 묘사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서술 구도 성립의 전제 조건은 논개의 행위를 여성으로서의 자기 방어가 아닌 “신민” (臣民)으로서의 “충절의 발로”로 보는 것이었는데, 1740년에 의기사 (義妓祠)가 세워진 뒤에는 논개를 “여성 충신”으로 보는 것은 이미 국가의 공인을 받은 통념적 시각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이와 같은 조선조 지배계급의 국가/유교 도덕 위주의 시각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가미되어 지금과 같은 “우리 민족의 저항의 영웅”으로서의 논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1946년, 해방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때에 출판된 박종화의 역사소설 <논개>에서 논개가 죽는 순간에 “나의 몸뚱이 속에서의 순결한 조선 민족의 깨끗한 피, 차마 왜적의 성욕에 짓밟힐 수 없다!”라고 자신에게 외치고 죽기로 마음먹는다. 1593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과연 무장한 강간범 앞에서는 논개가 “조선”에 대한 생각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도 생각할 수 없었을까? 과연 지금도 우리가 논개의 행동을 여성이 아닌 민족과 국가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 논개가 그 최후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설령 국가와 임금 내지 “민족”을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낸 그녀의 행동이 덜 위대하게 되거나 폄하되는 것도 전혀 아닐 것이다.

(제3발표 토론)

박노자, “임진왜란과 義妓 전승 - 전쟁, 도덕, 여성”을 읽고

정명기(원광대 국어교육과 교수)

☆

발표자의 이번 발표는, “아마존 전승에 의한 고정화된 젠더(gender) 담론의 부분적 문제화 내지 전복은 세계사의 보편적인 현상”(2쪽)이라는 전제 아래 시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약화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임란과 호란, 이괄의 난(1624) 등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일타홍, 박씨부인 등의 면모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녀들은 ‘전쟁 상황에 내던져진 열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

질의자가 발표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본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義妓 傳承’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인 ‘논개’를 주목, 그 인물의 행적에 덧 씌워진 여러 사회, 정치, 이념적 문제가 어떻게 <논개 전승>의 神話化에 작용하며 해당 전승의 이야기를 어떻게 굴절, 변용시키고 있는지를 따져보려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곧 ‘논개’라는 여성인물이 행한 행위는 <근대적인 민족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18~9세기에 이루어진 논개 이미지의 각색, 미화 과정의 결과물>로서의 면모를 띠며 굴절, 변용된 바, 그녀의 행동은 그런 외피를 거세할 때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존심의 발로> 내지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저항심>, 나아가 <유교적인 ‘정절’의 논리>(4쪽)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곧 <논개 전승>의 초기적인 면모를 담고 있는 『어우야담』의 문면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

논자의 주장은 몇몇 자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면모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에 논의 전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질의자 또한 발표자의 시각 자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바, 따로 이견을 제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어우야담』 자체에서 이미 확인되듯이, <논개 전승>은 지배계층인 유몽인의 이념과 윤리에 맞는 방향으로 굴절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런 시각 자체가 뒷날 <논개전승>의 신화화를 가능하게 한 보다 근본적인 動因인 동시에, 또 이야기를 이야기로 수용, 전승하지 않고 신화화로 대변될 나뉠의 한계(?)를 낳게 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논개전승>의 신화화는 18~9세기 淸州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당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촉발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를 기울일 만한 주장입니다만, 이런 요인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인지? 조선후기에 들어와 무너져 가는 사회질서 체제를 재정립하려는

지배계층의 의도가 은연중 또는 노골적으로 덧붙여 그것에 투사된 결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인용과 해석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에 앞서 선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우야담』의 원문의 移記에서 드러나는 많은 오류와 아울러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眙’과 ‘愛’(6쪽)의 차이 또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만 어느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했는지 아니면 완곡하게 서술했는지 정도의 차이만이 있는 것(곧 완곡어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좋은 발표를 통하여 새삼 많은 것 깨닫고 배울 수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